metro®
메트로 2015년 7월 29일 수요일 제3268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28일>

코스피 2039.10 (+0.29)

코스닥 745.24 (-5.80)

금리(국고채 3년) 1.70 (-0.01)

환율(원·달러) 1164.90 (-2.90)

복제약이 삼성의 미래?

뉴 삼성물산 미래 동력으로 '바이오' 강조
남의 약 베끼는 수준… 신약개발 없인 '허당'

삼성의 바이오 사업은 그룹 전체를 끌고 가는 차세대 먹거리가 될 수 있을까. 현재 삼성은 의약품위탁생산(CMO)과 바이오시밀러(복제약) 등의 바이오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두 분야 모두 꾸준한 성장세가 전망되지만 이 같은 포트폴리오로 수십조원대의 연매출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직 신약 개발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CMO와 바이오시밀러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2020년 연 매출은 각각 9400억원, 9500억원으로 전망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MO,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시밀러 전문 회사다. 삼성의 바이오사업은 2025년에는 연매출 3조9000억원원과 영업이익 2조2000억원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너지 가운데 하나로 바이오 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꼽았다. 하지만 뉴삼성물산이 제시한 2020년 매출 목표에서 바이오 사업이 차지하는 매출비중은 3% 수준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부터 1공장(3만 ℓ 규모)에서 상업생산에 들어갔다. 단일 설비로 세계 최대수준인 15만 ℓ 규모의 2공장은 내년 1분기 중 가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2020년까지 제3공장(15만 ℓ)과 제4공장(15만 ℓ)을 추가 증설할 가능성도 있다. 제3공장이 완공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최대 바이오의약품 CMO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자가면역질환치료제, 항암제, 당뇨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6개 제품에 대한 개발·임상과 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삼성 바이오사업의 장기비전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신약개발 등의 밑그림을 그리지 못하면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꾸준한 매출을 얻을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와 같은 '히트약품'의 경우 개발사에 큰 이익을 안겨주고 있다. 비아그라 개발사인 화이자는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비아그라를 팔아 연평균 약 19억 달러(약 2조2000억원)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자의 지난해 매출은 496억 달러(약 57조800억원)였다.

삼성의 신약개발은 아직 먼 얘기다. 삼성 관계자는 "(바이오 사업) 기술력이 아직까지 신약개발을 바라볼 수준은 아니다"라며 "방향성은 맞지만 (신약개발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장조사기관 리포트링크에 따르면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2015년 18억9000만 달러(약2조2000억원)에서 2020년 255억3000만 달러(약 29조7000억원)로 성장할 예정이다.

/조한진 기자 hjc@metroseoul.co.kr

인천 송도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위), 신동빈 롯데 회장(아래왼쪽),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이방원 스타일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놓고 신동빈(60)·신동주(61) '형제의 난'이 시작됐다.

한때 창업자인 신격호(94) 총괄회장의 후계가 차남인 신동빈 회장으로 정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과 신동빈 한국 롯데그룹 회장간 분쟁이 표면화되며 극한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2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에서 전격 해임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신동빈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진을 소집해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 총괄회장을 해임했다.

최근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선임돼 한·일 통합경영자가 된 차남이 아버지의 대표이사직을 빼앗아버린 것이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27일 오전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그룹 부회장 등 5명의 친족들과 함께 전세기 편으로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94세 나이로 거동이 불편한 신 총괄회장의 일본행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으로 간 신 총괄회장은 27일 오후 일본 롯데홀딩스를 방문해 자신을 제외하고 신동빈·츠쿠다 다카유키 대표 등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 6명을 해임했다. 이에 신동빈 회장 등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 6명이 신 총괄회장의 27일 이사 해임 결정이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불법적인 결정이라고 규정, 28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 총괄회장을 대표이사 회장에서 해임했다.

업계는 이번 사태에 대해 신 총괄회장이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롯데의 소유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신동빈 회장이 반발한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롯데 한 관계자는 "당초 신격호 총괄회장이 소유권은 장남 신동주에게 경영권은 차남 신동빈에게 맡기려 한 것 같다"며 "90을 넘은 나이에 소유권 승계 정리 차원에서 자신을 제외한 홀딩스 이사들을 해임한 것에 대해 차남 신동빈이 대립각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앞세워 신동빈 회장에 맞서 지분 경쟁에 나설 경우 롯데그룹은 경영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롯데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19%를 보유한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다. 광윤사는 신 총괄회장이 약 50%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실질적인 주인이다.

또 국내 롯데를 지배하고 있는 'L투자회사'의 실질적인 주인도 신 총괄회장이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선택에 따라 롯데그룹 후계구도는 언제라도 바뀔 수 있다.(본지 7월1일자 '신동빈의 롯데, 아직 시기상조' 기사 참조)

▶ 관련기사 15면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정치

▲ 정부는 발병 70일만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종식을 선언했다. 황교안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메르스로 인한 불안감을 모두 떨쳐버리고 경제생활, 문화와 여가 활동, 학교 등 모든 일상생활을 정상화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국회 메르스특위가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부가 메르스 사태 종식을 선언하면서 진상규명을 비롯한 본격적인 사후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 중국 광저우시·산둥성·쓰촨성 등 지방정부들과 체코, 러시아, 대만, 아랍에미리트(UAE), 몽골, 베트남 등 메르스 사태로 **한국 방문 자제**를 권고했던 나라들이 권고를 모두 해제했다. 다만 홍콩은 불필요한 한국 여행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홍색 여행경보를 유지하고 있다.

▲ 새누리당이 올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된 노동개혁을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상임금·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등 법·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 비리의 온상이던 **재향군인회**가 790억원의 손해를 보고도 피해규모를 축소해 재판에서 가해자를 도우려고 한 사실이 또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감독기관인 보훈처는 봐주기로 일관해 존재 이유를 의심받고 있다.

사회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을 2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김현웅 법무장관은 28일 법무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지능형 전자발찌**'와 관련, "시스템 구현의 안정성은 물론 대상자의 인권보장 측면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자세히 검토해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 '**포스코 비자금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28일 정 전 부회장을 구속한 뒤 포스코 수뇌부로 방향을 돌리려던 검찰의 수사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 5일 2015년도 제2회 초·중·고졸 학력인정 **검정고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초졸 404명, 중졸 1531명, 고졸에 5677명 등 총 7612명이 지원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TV 광고** 시간을 제한하는 규제의 적용 기간을 201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시행됐다고 밝혔다.

경제·산업

▲ 현대엔지니어링이 **분식회계** 혐의가 보도되면서 국내 건설사의 '회계'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공사손실충당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클릭 몇번만으로 예·적금 가입과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 초읽기에 들어갔다.

▲ **삼성물산**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서 합병 무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은 다음달 6일까지다.

▲ 지난해 8월부터 시행돼 이달 말 시효가 만료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가 1년 연장된다.

▲ 올 하반기 건설사들의 **설계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분양 러시로 공급 물량이 포화 상태에 이른 데다, 가격까지 상승하고 있어 수요자들의 보는 눈이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기아자동차**가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에 개입하는 등 월권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아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 판매실적이 저조한 영업직원을 해고하도록 강요해 판매코드 여유분을 확보한 뒤 다른 대리점의 신규 직원에게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자동차 판매사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은 퇴사 6개월이 지나야만 대리점에서 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어 채용을 제한한 사실도 확인됐다.

▲ 2G 휴대폰 시장을 이끌었던 폴더폰이 돌아왔다. 삼성전자는 28일 **폴더형 스마트폰** '갤럭시 폴더'를 출시했다. LTE와 3G 모델 등 2종으로 출시되는 갤럭시 폴더의 출고가는 모두 29만7000원이다. LG전자는 29일 20만원대 스마트 폴더폰 'LG 젠틀'을 출시한다.

▲ **한화테크윈**은 지난 27일 여의도 63빌딩에서 김철교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新)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서 한화테크윈은 '글로벌 항공방산 및 첨단장비 솔루션 리더'라는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고 2020년 매출 5조원, 2025년 10조원을 돌파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메르스 종식, 명동거리 북적북적 황교안 국무총리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의 종식을 선언한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으로 북적거리고 있다. /뉴시스

국제

▲ 미국 시사주간지 뉴욕 매거진이 커버스토리 표지를 미국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78)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35명의 여성으로 채우는 파격적인 편집을 선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

▲ 주가가 8.5% 급락한 '검은 월요일' 다음날 **중국 증시**의 하락세가 주춤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안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투자자의 신뢰가 일부분 회복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성명을 통해 오는 11월 29일 이후 테러 조사에서 무차별 통화기록 수집을 중단하고 가능한 한 빨리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미 연방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과 마약단속국(DEA)만이 해킹팀사의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이전까지의 언론보도와는 미국 전역에서 백여개 이상의 경찰당국이 해킹팀사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킹 유혹에 빠진 경찰서의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연행은 없었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했다.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에 대해서도 "일본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비난했다.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각료회의가 미국 하와이 마우이 섬의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나흘 일정으로 열렸다. 이번 하와이 각료회의는 TPP 협상 최종 타결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로,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 협상단은 규범과 시장접근 분야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혀 합의 선언을 끌어낸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 영국의 세계적인 천체물리학자 스티븐 호킹과 테슬라 최고경영자 엘론 머스크, 애플 공동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 등을 비롯해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 1000여명이 공개서한을 통해 **킬러 로봇**이 국가간 군비경쟁을 초래한다며 전 지구적 차원에서 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여금, 통상임금으로 법제화되나

노동개혁 위해 법제화 추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느냐 아니냐. 논란 중인 이 문제가 법제화를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당청이 노동개혁을 위해 근로기준법 정비에 나설 방침이기 때문이다. 통상임금 문제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당청은 28일 올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한 노동개혁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이날 노동 개혁에 관한 상견례 형식의 첫 회동에서 당청은 1시간 넘게 노동개혁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는 이후 브리핑을 통해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문제를 법제화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고용보호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의 주축이 되는 통상임금 분야에서는 임금의 범위를 두고 이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 노사정은 통상임금을 '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둔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제화된 것은 아니다. 게다가 통상임금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제외금품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통상임금의 기준이 확대될 경우 근로자 연계 보수가 올라간다. 근로자 측에서는 기준 확대를 원하고 경영자 측에서는 축소를 원할 수밖에 없어 갈등과 논란을 부르고 있다. 특히 쟁점은 상여금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도급 금액 등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위험수당 △벽지수당 △물가수당 등과 같이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 없이 사업주가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된다. 상여금이나 연월차수당·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2013년 12월 "상여금도 정기적으로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의 일부로 간주된다"는 대법원의 판례 이후 일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늘었다. 상여금 부분은 법제화되지 않고 사회적 합의로만 이뤄져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적 해석은 수차례 의견이 엇갈려왔다.

현재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는 합의로 이뤄지던 통상임금 분야를 법적으로 명문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 사항에만 법례를 정할 뿐 구체적인 것은 여전히 시행령에 위임할 것으로 보여 노사 간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시행령에 명시될 정기적·일률적이지 않은 보험료와 성과급 등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정원 기자 garden@metroseoul.co.kr

근로기준법의 변천사

근로기준법은 노동법의 일종으로 사회법의 근간이 된다.

근로기준법은 1953년 법률 제286호로 제정된 뒤 11차례 개정됐다. 1997년 법률 제5305호로 이전의 법률은 폐지되고 법률 제5309호로 새롭게 제정된 뒤 2010년 법률 제10366호까지 22차례 바뀌어왔다.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킹 유혹에 빠진 공권력… 미 전역 100여개 넘는 경찰서, 해킹팀과 접촉 미국 정부를 향해 정보 공개 요구 운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인 MUCKROCK이 이탈리아 해킹팀사의 유출자료를 분석해 정리한 자료. 연방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과 마약단속국(DEA)만이 해킹팀사의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이전 언론보도와는 달리 이 자료에는 미국 전역에서 100여개 이상의 경찰당국이 해킹팀사와 접촉한 내용이 정리돼 있다. MUCKROCK은 제보를 받아 계속해서 자료를 보충하는 중이라 해킹 유혹에 빠진 경찰당국의 수는 더 욱 늘어날 전망이다. /MUCKROCK 홈페이지

부패 봐주는 보훈처 존재 의문

재향군인회(향군)의 부패 실상이 또 다시 드러났다. 반복되는 부패의 뒤에는 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의 '봐주기'가 있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민들을 위하라는 보훈처의 존재 이유가 의심받고 있다.

보훈처는 28일 향군 특별감사 결과 발표에서 향군 경영본부장인 조모씨의 비위 사실을 공개했다. 향군에 790억원의 손해를 끼친 최모씨를 돕기 위해 조씨는 향군의 피해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최 씨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다.

또 향군 회장은 이런 조씨를 경영본부장에 앉히기 위해 전임자를 불과 21일만에 해임했다. 최씨는 향군 회장에게 선거 당시 막대한 자금을 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보훈처는 이번 특감에서 선거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는커녕 사실상 묵인하는 행태를 보여 보훈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송병형 기자

김무성 "중국 보다 미국"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우리나라 정부의 외교 우선순위를 거론하면서 "우리는 중국보다 미국이다"라고 말했다.

방미 중인 김 대표는 27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식당에서 열린 워싱턴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의 만찬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대표는 "내일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면 한미동맹의 소중함을 얘기하고, 특히 우리는 중국보다 미국이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우리에게 미국은 대체 불가능한 동맹"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의 '미국 중시' 발언에 장내가 술렁이자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대표의 말은 중국도 중요하지만 미국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윤정원 기자

메르스 종식 선언일에 '삼성병원 감사결의안' 채택

본회의 통과 남아

국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특위가 28일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정부가 메르스 사태 종식을 선언하면서 진상규명을 비롯한 본격적인 사후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특위는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삼성서울병원의 역학조사와 방역 관련 감사를 통해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의견을 수용해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결의안 제안과 관련해 "특위를 운영하는 동안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에 역학조사와 방역을 왜 일임하게 됐는지, 이후 정부가 관리와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지 등에 대해 충분히 해명이 되지 않았다"며 "역학조사와 방역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명확히 내용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소속 신상진 위원장은 결의안을 채택하며 "특위를 마치면서 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대정부 촉구 결의안을 만들어 특위의 의지를 강력히 표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의안에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정부 당국의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 비공개 결정과정 등 메르스 사태 전반에 대한 원인 규명 △삼성서울병원에서의 메르스 환자 격리 등 조치의 적절성 여부와 정부 역학조사 과정에서의 비협조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특위는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다. 이 결의안은 특위가 활동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정책제안을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위는 활동보고서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으로의 격상 △보건의료부 독립·신설과 복수차관제 도입 △방역관리 대응 매뉴얼 마련 △방역역량 강화를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분야 첨단기술 연구개발 강화 △응급실 과밀화 해소방안 마련 △병원감염위원회 의무설치대상 확대 △병원 방문문화 장려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

전자발찌 실시간 관리하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28일 오후 서울 휘경동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직원들이 관제 업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국 노력은 헛수고… 中증시, 대공황 패턴”

WSJ “중국 증시 비밀 탄로… 신뢰회복 힘들어”

‘검은 월요일’ 다음날인 28일 중국 당국의 노력으로 증시의 하락세가 주춤했지만 세계의 시선은 불안하기만 하다. 더 이상 중국 당국의 안정노력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지배적이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는 전문가의 신랄한 비판이 실렸다. 주식중개업체인 IG의 데이비드 매든 애널리스트는 “중국 증시의 비밀이 탄로난 상태”라며 “중국 증시가 전날 하루 사이에 급락한 현상은 중국 정부의 증시 안정 노력이 헛수고라는 사실을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증시에 아무리 자금을 퍼부어도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 것 같다”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이 전한 소식도 마찬가지다. 톰 드마크 애널리틱스 대표는 “중국 정부의 부양책으로는 더 이상 증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없다. 시장은 조작될 수 없고 펀더멘털이 시장을 설명해 줄 뿐”이라며 “최근 중국 증시 흐름은 1929년 대공황 당시 다우존스 지수의 움직임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3주간 중국 증시가 14% 가량 더 하락해 3200선까지 주저앉을 것”이라고 했다.

WSJ는 영국의 구매공급협회(CIPS)를 인용해 더욱 암울한 전망을 내놓기까지 했다. CIPS는 “중국 신용평가사들이 자국 기업 채권의 신용등급을 터무니없이 높게 평가했다”며 “인민은행이 채권시장에 대한 압력을 가하면 중국 공급업체들의 상당수가 디폴트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CIPS가 제시한 자료에는 중국 채권에 대한 중국 신용평가사의 평가가 S&P, 무디스,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와 있다.

HSBC 글로벌 자산운용의 그레고리 수엔 채권 투자 부문 책임자는 “중국 현지의 트리플A는 해외 트리플A와 결코 동등하지 않다”며 “똑같은 트리플A라도 발행자에 따라 질적으로 신용이 매우 다르다”고 말했다.

CIPS의 존 글렌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기업들의 과도한 부채로 글로벌 공급망에 불안이 나타날 우려가 커졌다. 중국에서 신용도가 양호한 기업이라도 자금조달 규모가 줄어들면 비용절감 압박을 받거나 선적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증시는 이날 정부 당국이 부양의지를 내비침에 따라 하락폭이 줄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보다 62.56포인트(1.68%) 떨어진 3663.00으로 장을 마쳤다. 선전 성분지수도 176.27포인트(1.41%) 하락한 12316.78로 마감됐다. 두 증시에서 거래되는 1800여개 종목 가운데 하한가(10%)를 기록한 종목도 300개 정도에 그쳤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빌 코스비 성폭행 파문 확산 미국 시사주간지 뉴욕 매거진이 27일(현지시간) 커버스토리 표지를 미국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78)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35명의 여성으로 채우는 파격적인 편집을 선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 /연합뉴스

“메르스 계기로 관광업계 체질·구조 개선돼야”

박원순 서울시장 촉구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이 관광업계의 체질과 구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28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위기를 계기로 관광업계 체질과 구조를 모두 바꾸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8시 30분 시청 8층에서 서울관광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관광업계-경제계 합동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오늘은 정부가 메르스 종식을 공포하는 의미 깊은 날”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적인 종식 발표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실상 종식 선언인 만큼 침체된 관광업계가 살아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서울시는 그동안 관광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며 “이번 추경에서도 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해 160억원 정도를 편성했다. 통과만 되면 바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 시장은 “그럼에도 외국인 관광객의 발걸음을 돌리게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며 북경 특별사절단의 서울 방문과 중국판 ‘우리 결혼했어요’인 ‘루궈아이’ 서울 촬영 등을 거론했다.

박 시장은 메르스로 인한 타격이 9~10월쯤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회복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메르스 위기를 계기로 관광업계 체질과 구조를 모두 바꾸는 기회가 돼야 한다”며 “관광업계의 고질적인 병폐 등 서울시와 관광업계 차원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서울이 관광객 없이는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을 이번 사태로 확인했다. 관광객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다면 스스로의 결의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관광업계와 경제계의 총력을 촉구했다.

/김서이 기자 redsun217@

9호선 연장개통 4개월… 혼잡시간대 2.3% 증가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이 개통한지 4개월이 지났지만 우려했던 혼잡 대란은 없는 것으로 서울시는 평가했다.

28일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지하철 9호선 1단계(개화역~신논현역) 구간의 최고 혼잡시간대(오전 7시 30분~8시 30분) 승객은 2단계 개통 전보다 2.3% 증가 하는데 그쳤다.

오전 7시 30분 이전에는 3.6%,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는 6.6%,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는 9.3% 늘었다. 특히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 영향으로 1단계 구간의 승객은 평시 수준을 유지하고 2단계 구간은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단계 구간 개통 후 9호선 전 구간의 이용객은 45만 7000명에서 50만 7000명으로 5만명(11.1%) 증가했다.

서울시는 올해 승객이 61만명까지 늘 것으로 봤으나 현재 추세대로라면 내년 8월 최초 증차 시점까지 54만명까지만 증가해 안정적인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미란 기자 actor@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강 세 준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국민 3000명당 1명 꼴 격리… 메르스가 남긴 기록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해 국민 3000명당 1명 꼴로 자가 격리를 경험했다. 메르스는 국내 첫 환자 발생부터 마지막 자가 격리자가 해제되기까지 많은 기록들을 남겼다.

중동을 다녀온 최초 환자 A(68)씨는 귀국 일주일 만에 고열·기침 증상을 느꼈다. A씨에게 전염이 생기면서 메르스 사태가 시작됐다.

허술한 초기 방역 속에 환자 수는 지난달 9일 처음 100명을 돌파했다. 마지막 환자 발생은 지난 4일이었다.

자가격리자 수는 더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 6월 2일 1000명을 넘었고 같은 달 17일에는 최다인 6729명으로 수가 늘었다.

의료진은 사투를 벌였다. 레벨D 보호구는 총 99만3826개, N95 마스크는 151만280개가 지급됐다.

다행히도 환자 발생은 멈췄고, 한때 6000명이 넘던 자가격리자 수는 0이 됐다. 정부는 28일 사실상 메르스 종식을 선언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메르스를 기록으로 돌아봤다.

세계 수준으로 손꼽히는 국내 의료진의 적극적인 희생 속에 확진 환자 중 138명(74.2%)은 건강을 되찾고 퇴원했다.

사망자 36명의 발생은 막지 못했지만 치명률(19.35%)은 전세계 평균(38.65%)의 절반 수준으로 낮았다.

지난 27일 0시에는 마지막 1만6693번째 자가격리자가 격리에서 해제됐다. 자가격리자 수는 한때 6729명에 이르렀다.

현재 메르스로 인해 입원 치료중인 12명 가운데 11명은 메르스 바이러스에서는 완치 판정을 받고 후유증을 치료중이다.

현재 유일한 메르스 양성자(80번 환자)가 완치되는 날로부터 28일 후가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하는 메르스 종식일이 된다.

국내 최고 병원 중 하나로 꼽히던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환자 90명이 발생해 37일 동안 부분폐쇄 조치를 당했다.

해당 기간 삼성서울병원의 환자 수는 평상시(8000여명)의 10분의 1 수준인 800명으로 줄었다.

/김서이 기자

헌재, 성공보수 대법원 판결 심판대 올릴까

헌법재판소법 "법원 재판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 못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본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여 심판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범법조계는 변협의 주장이 헌법소원청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헌재의 법률 해석이라는 난관을 거쳐야 한다는 것. 현행법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재의 위헌여부 심판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헌재가 어떤 법률을 적용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변협이 제기한 헌법소원의 운명을 가른다는 얘기다.

변협이 지난 27일 제기한 헌법소원의 핵심은 '대법원 판결 취소'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의 위헌 여부 확인' 등 두 가지다. 일단 변협의 헌법소원 핵심인 대법원 판결 취소에 대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헌법소원 항목인 헌재법 68조 1항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먼저 정립돼야 한다.

해당 조항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셈이다. 변협이 헌법소원을 내며 동 조항의 위헌 확인을 함께 요청한 이유다. 헌재로부터 이 조항에 대해 위헌성을 인정받거나 최소한 이 조항이 대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법학 전문가들은 헌재가 헌법소원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한정위헌결정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정위헌결정은 법원의 판결에 쓰인 법률의 개념이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 법규의 해석이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헌재가 이를 토대로 변협의 청구를 받아 들인다면 헌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헌재법이 금지하는 재판소원은 재판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린다면 한정위헌결정은 법률 조항에 대해 판단하는 것으로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려도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법률해석이나 적용 권한을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전권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해도 대법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다. 범법조계 일각에서 변협의 헌법소원 제기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헌법 전문학자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한정위헌결정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 뒤 "이를 토대로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되는 68조 1항은 상관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다만 황 교수는 "헌재가 변협의 헌법소원을 어떤 법률로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 재판관마다 의견이 갈리는 어려운 사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심폐소생술은 이렇게…" 28일 세종시 연서면 용암리 고복자연공원에서 열린 고복야외수영장 개장식에서 한 어린이가 세종소방본부 대원의 도움을 받으며 심폐소생술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法 "차 작다는 건 변명"

버스 상대 보복운전 '유죄'

버스를 상대로 한 승용차 운전자의 보복운전이 결국 유죄로 결론났다. 승용차 운전자는 버스보다 크기가 작아 보복운전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이를 협박으로 판단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보복운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협박)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밤 시간대에 준중형 외제차를 몰고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부산 방향으로 가던 중 고속버스가 앞으로 끼어들려 하자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A씨는 버스가 자신의 차 뒤로 진입하자 겁을 줄 목적으로 급제동해 버스 운전기사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게 했다. 버스는 A씨 차를 피하려고 차선변경을 했지만 A씨는 그 앞으로 차선변경을 한 뒤 두 차례나 급제동을 더 했다.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으나 A씨 차와 버스가 모두 시속 90㎞ 이상으로 달리고 있었기에 크게 위험한 상황이었다. 특히 승객 중 한 명은 놓친 휴대전화를 주우려다 앞으로 넘어지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무죄를 주장했다. 버스에 겁을 줄 목적이 없었으며 고의도 아니었고, 특히 A씨는 "내 차가 버스보다 크기가 훨씬 작다"며 보복운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무고한 다수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이 큰 위험에 처하게 됐다"며 "이러한 운전 행위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당시 직접 충돌은 없었지만 급제동 과정에서 노약자나 잠든 승객이 부상할 위험이 컸으며 버스 운전기사가 당황해 운전대를 급히 돌리는 경우 2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역시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형은 유예하지만 복지시설·단체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교육 수강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전했다. /연미란 기자

납부고지서 불복절차 어떻게?

생활 법률

A씨는 지난해 말 5년 이상 거주한 아파트를 매각했다. A씨는 매각한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한 아파트가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1억원을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받았다. 이 같은 경우 A씨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납세고지서를 받더라도 세금을 납부할 대상이 아니거나 고지된 세금이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절차를 거칠 수 있다.

불복절차는 국세와 지방세에 따라 차이가 있다. 국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의 경우 부과처분(불복절차의 대상이 되는 납세고지)에 대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행정심판절차로는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청구할 수 있다. 대체로 조세심판원은 부과처분 금액이 거액이 아닌 경우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주는 인용률이 다른 기관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방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는 행정심판이 강제되지 않는다. 납세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절차를 밟은 뒤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지방세에 대한 행정심판은 납세고지서를 통지한 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 3가지 절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인지대와 송달료 등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소송과 달리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이 잘못 부과됐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을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유선준 기자 rsunjun@

삼성물산 결국 매수청구권가 아래로

주총 후 연일 하락… 자사주 매입도 안돼 '사면초가'
합병반대 주식 모두 청구하면 합병계약 유지 어려워

삼성물산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서 합병 무산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은 다음달 6일까지다. 제일모직은 자사주매입을 통해 주가 하락 방어에 나섰지만 삼성물산은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사면초가에 빠졌다.

2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물산은 전 거래일 대비 1.55%(900원) 내린 5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는 5만64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삼성물산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인 5만7234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합병안이 발표된 지난 5월26일 이후 처음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계약서에 따르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액이 두 회사를 합쳐 1조5000억원 이상이면 합병이 취소될 수 있다. 지난해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도 합병을 결정했다가 주식매수청구권 요청이 쇄도해 합병이 무산된 바 있다. 삼성물산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가격보다 낮아진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를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주주총회 이전에 합병 반대 의사를 통보하고, 주총에서도 반대에 의결권을 행사했어야 한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 비중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주총에서 합병안에 반대표를 던진 주식은 4033만2140주로 전체의 25.82%다. 이들 모두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삼성물산이 감당해야 할 비용은 2조3083억원에 달해 합병계약이 유지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삼성물산 주가가 합병 비율에 따라 제일모직 주가에 연동해 움직이기 때문에 제일모직의 주가 방어 정책이 양사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란 주장이다.

강선아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물산 주가 하락은 건설업종과 시장 전반적인 약세 관점에서 봐야한다"며 "제일모직의 자사주 매입 조치 등으로 합병 무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삼성물산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서 합병 무산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은 다음달 6일까지다. 사진은 지난 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 모습. /연합뉴스

그러나 제일모직 주가는 자사주 매입계획 발표 이후에도 하락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제일모직은 지난 23일 주가안정을 위해 44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식에 다음날 장 초반 강보합세를 보이던 제일모직 주가는 이내 하락세로 돌아서 연일 약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8일 제일모직 주가는 전일 대비 1.47%(2500원) 내린 16만7000원을 기록했다. 주총 이후에만 14% 하락했다. 자사주 매입 발표 이후로는 2.9% 빠졌다.

제일모직이 주가 하락 방어에 실패함에 따라 삼성물산 주가 상승도 요원해졌다. 특히 삼성물산은 합병 과정에서 KCC에 자사주를 매각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자사주 매입이 불가능하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유통업계, 청년 일자리 늘린다

정부 '청년 고용절벽 해소 대책' 따라 추가채용 검토

롯데·현대·CJ 등 주요 유통기업들이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 발맞춰 하반기 채용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유통기업들은 올 초 밝힌 발표한대로 채용을 진행하는 한편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채용도 검토해본다는 입장이다

롯데그룹은 올초 지난 2월 발표한 대로 1만5800명을 채용할 방침이다.

롯데는 올해 채용 인원 중 신입 공채 800명과 하계 인턴 400명 등 1200명 규모를 선발했으며 나머지 인원도 하반기 중에 채용할 계획이다.

롯데 그룹은 투자와 고용 확대를 통해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2010년 이후 연평균 10% 이상씩 채용 규모를 늘려왔다.

현대백화점과 홈쇼핑은 올해 하반기에 2381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는 지난해 1952명을 채용한 것과 비교할 때 22% 증가한 수치다.

CJ그룹, 이랜드 그룹 등에서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채용 규모를 소폭 늘릴 계획이다.

CJ그룹은 스펙초월 채용을 실시하는 등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청년 인재를 뽑아오고 있다. 지난해 여성 입사자 비율은 50% 정도다. 서류 심사 뒤 CJ 종합적성검사 전형, 실무진 면접, 임원면접을 거쳐 채용한다. 올해 채용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1200명 수준이다.

이랜드그룹 또한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학력, 영어 등 스펙을 초월해 패션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인재를 선발하는 패션피플 전형을 도입하는 등 열린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채용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 규모인 1300명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폴더폰의 귀환

삼성 '갤럭시 폴더'·LG '젠틀' 등 가격 저렴하고 편의성 높아 인기

2G 휴대폰 시장을 이끌었던 폴더폰이 돌아왔다.

삼성전자는 28일 '갤럭시 폴더'를 LG전자는 전날 '젠틀' 등 20만원대 가격의 폴더형 스마트폰을 잇따라 선보였다.

폴더형 스마트폰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꾸준히 팔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장년층은 터치 방식을 어려워하거나 어색해하며 물리 키패드를 훨씬 더 선호한다"고 전했다.

이들을 위해 기본 휴대폰 기능에 카카오톡, 메신저, SNS 등 스마트폰 기능을 더한 제품이 폴더형 스마트폰이다.

지난해부터 삼성전자는 '갤럭시 골든,' LG전자는 '와인 스마트', '아이스크림 스마트' 등 폴더형 스마트폰을 선보였다.

올 하반기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나란히 폴더형 스마트폰을 선보이며 중장년층 공략을 강화한다.

'갤럭시 폴더'와 '젠틀' 두 제품 모두 사용자를 배려해 편의성을 높인 기능을 탑재했다.

'갤럭시 폴더'와 '젠틀'은 자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단축키로 지정할 수 있다.

'갤럭시 폴더'는 소셜 애플리케이션 키, '젠틀'은 Q버튼을 통해 자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단축키로 지정해 빠르고 간편하게 실행할 수 있다.

또한 두 제품 모두 물리 키패드와 화면 터치를 통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어 폴더폰과 스마트폰의 특징을 그대로 적용했다.

아울러 '갤럭시 폴더'와 '젠틀'에는 지상파 DMB를 탑재했다.

'갤럭시 폴더'는 전면 200만 화소·후면 800만 화소 카메라, 3.8인치 디스플레이, 1.2GHz 쿼드코어 프로세서, 1800mAh 착탈식 배터리 등을 탑재했다.

'젠틀'은 전면 VGA·후면 300만 화소 카메라, 3.2인치 디스플레이, 1.1GHz 쿼드코어 프로세서, 1700mAh 착탈식 배터리 등을 탑재했다.

'갤럭시 폴더'는 LTE와 3G 모델 2종으로 출시되며,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다. '갤럭시폴더' 3G 모델은 SK텔레콤을 통해 출시된다.

'젠틀'은 LG유플러스를 통해 출시되며 색상은 네이비와 버건디 두 가지다.

출고가는 '갤럭시 폴더' 29만 7000원, '젠틀'은 20만원대 초반이다.

/임은정 기자 eunj71@

국내최초 윈덤본사와 기술 자문 및 책임 **TSA** 약정체결!

"2천만원" 만 있으면!

수익안심보장제도

- 계약즉시 수익지급!!
- 5년 후 원분양가+α 환매조건 분양

5년후 원금보장 +α까지 되는 호텔
객실당 실투자 2천만원대

강원라마다호텔&리조트에
'테디베어 올림픽테마파크' 개관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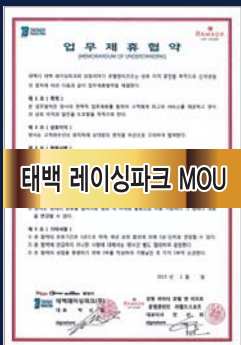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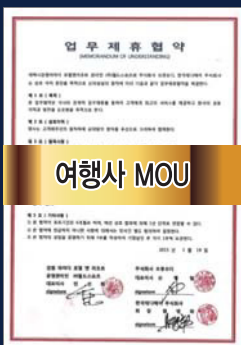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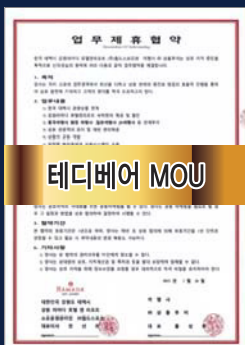
※상기조감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제휴사 **고정고객 확보**	분양가 **9천만원** 실투자 **2천만원대**	**3년 수익금** 약 2,400만원 **즉시 지급**	**5년후 원분양가 환매보장**	잔금납입 즉시 이전등기 **계약즉시 수익발생**	국내 체인 라마다호텔 **연10일 무료이용**

테디베어 MOU

여행사 MOU

태백 레이싱파크 MOU

올림픽파크 전시관

청약방법

청약금 : 100만원 [외환은행 630-009601-061]
예금주 : (주) 생보부동산신탁 ※미 계약시 청약금은 전액 환불됩니다.

| 운영자문 (주)산하HM | 자금관리 SAENGBO 생보부동산신탁 |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 (주)도모건축 | 시행사 (주)월드스포츠

※생보부동산신탁은 상기 '수익금 지급 및 관리' 와 무관합니다.

■대지위치 :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24-10 외 ■대지면적 : 7,186㎡(컨벤션 및 기타부지 제외) ■건축규모 : 15,133.58㎡ (지상면적 14,186.06㎡ / 지하면적 947.52㎡) ■시설규모 : 객실 305실, 10개동(동당 30~31실)
■객실타입 : Standard 177실, Deluxe 90실, Suite 28실, 단체실 10실(총 305실)

분양문의 02)756-2000

증시 주도주 '굴뚝'에서 '화장품'으로

2분기 실적 발표계기 산업 지형도에 변화 조짐

주도주가 교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전자·철강·조선 등 전통적인 주도업종은 위축된 반면 화장품을 비롯해 새로운 주도주가 증권시장을 지켜주고 있다. 이같은 변화가 우리나라 산업의 지형도까지 바꿀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이같은 조짐은 대형주의 2분기 실적을 통해 일부 드러났다. 28일 금융정보업체 와이즈에프엔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4일까지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 38곳 중 19곳(50%)이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내놓았다. 주로 전통적인 강세종목인 IT와 굴뚝산업의 수출주가 부진했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7조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대한 시장 눈높이보다 작은 실적(6조9006억원)을 발표했고, SK하이닉스도 컨센서스에 못 미치는 1조3755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데 그쳤다. LG이노텍의 2분기 영업이익 489억원은 시장 기대치(670억원)보다 27.0% 적은 수준이다.

현대차는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3조338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7.1% 줄어들었다. 매출은 1.4% 줄었고, 차량 판매도 3.2% 감소했다. 기아차 역시 상반기 매출이 23조6187억원으로 1.5% 줄어들고 영업이익은 1조1623억원 22.8% 줄어드는 초라한 실적을 냈다.

포스코는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686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2% 감소했다.

매출액도 15조1895억원으로 9.1% 줄었다.

오는 29일에는 '어닝 쇼크'(실적 충격)가 예상되는 조선주 '빅3'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굴뚝주'의 위축이 절정을 이룰 전망이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이 모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조 단위 적자가 우려되고 있다.

이밖에 삼성엔지니어링의 2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311억원)의 절반 수준인 149억원에 그쳤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2분기 영업이익도 시장평균 전망치에 30% 이상 밑돌았다. 또 OCI는 2분기 영업이익은 시장평균 전망치에 비해 85.5% 미달한다.

증권사들의 이익 전망치도 하향 조정되고 있다.

코스피 기업 271곳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치 합계는 한 달 전의 34조4891억원에서 33조7804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렇듯 전통적인 주도산업이 실적부진을 겪음에 따라 주가도 하락행진을 거듭하는 반면 지금까지 비교적 소외되어왔던 화장품 등 소비재 산업의 실적과 주가는 약진하고 있다.

반면 LG생활건강은 메르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 대비 38.3% 증가한 168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특히 화장품의 영업이익은 50.9%의 증가율을 달성했다. 3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새로운 '황제주' 아모레 역시 실적이 좋은 것으로 추정돼 최근 양호한 주가흐름을 보이고 있다.

/차기태 기자 folium@metroseoul.co.kr

증권 마감시황

코스피, 기관 순매수 3일만에 상승

코스피지수가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3거래일 만에 소폭 상승 마감했다.

28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0.29포인트(0.01%) 오른 2039.10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중국 증시 폭락에 따른 미국·유럽증시의 하락세 등 대외 불안감에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2015선까지 밀리기도 했으나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순매수에 상승 반전했다.

이날 기관이 1833억원 순매수한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883억원, 1328억원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통신업(2.79%), 의약품(2%), 증권(1.17%) 등이 올랐고 전기가스업, 금융업, 보험, 서비스업 등도 강보합권을 형성했다. 반면 운수창고, 기계, 유통업, 섬유의복 등은 1%대 하락률을 보였다.

시가총액상위종목 중에서는 한국전력(1.15%), 아모레퍼시픽(1.73%), 삼성생명(0.5%) 등이 오른 반면 SK하이닉스(-0.4%), 제일모직(-1.47%), 삼성에스디에스(-1.23%), NAVER(-0.16%) 등은 내렸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5.80포인트(0.77%) 내린 745.24로 장을 마감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431억원, 204억원 순매수한 반면 기관이 619억원 내던져 지수 하락을 견인했다.

업종별로는 종이목재(4.4%), 인터넷(1.52%), 금융(1.08%) 등이 강세를 보인 반면 기타제조업(-2.92%), 비금속(-2.75%), 제약(-1.74%) 등 대부분이 하락했다.

시총 상위종목 중에서는 파라다이스가 6.25%로 크게 올랐고 로엔과 씨젠 등도 3%대에서 상승했다. 반면 셀트리온(-1.01%), 동서(-1.3%), CJ E&M(-2.53%) 등은 약세를 보였다.

/김보배 기자

흥국에프엔비, 공모가 2만원 최종확정

흥국에프엔비 공모가격이 공모예정가 상단 1만7500원보다 높은 2만원으로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흥국에프엔비는 지난 2008년 설립된 프리미엄 식·음료 ODM 기업이다. 초고압살균공정(HPP) 및 동결농축공정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과일농축액(에이드베이스), 스무디 등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고 국내의 유명 커피·외식 프렌차이즈 등 다양한 매출처에 납품 하고 있다.

흥국에프엔비는 지난 22~23일 양일간 진행된 국내외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결과 공모예정가인 1만4500원~1만7500원의 상단보다 높은 2만원으로 공모가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공모로 총 300억원을 조달하게 된 흥국에프엔비는 HORECA(호텔·레스토랑·카페)와 커피·외식 프랜차이즈가 급부상하는 중국시장 대응을 위해 제품 개발·생산 및 중국 진출에 투자할 예정이다.

박철범 대표는 "이번 코스닥 상장을 통해 흥국에프엔비는 식·음료 산업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중국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비열처리 프리미엄 식음료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2020년에는 매출액 2020억원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흥국에프엔비는 오는 29~30일 양일간 청약을 거쳐 다음달 7일 코스닥시장에 상장 할 예정이다. /김보배 기자

LTV·DTI 규제완화 정책, 내달부터 1년 연장

차등 적용 되던 LTV·DTI 전 금융권 70%·60% 맞춰

지난해 8월부터 시행돼 이달 말 시효가 만료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가 1년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LTV·DTI 규제 완화 조치를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더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1100조 규모로 불어난 가계부채 문제에도 불구, LTV·DTI 규제 완화를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종전에 은행·비은행권·보험권 업권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별로 LTV가 차등 적용되던 것을 지난해 8월1일부터 금융업권에 상관없이 전 지역에서 대출시 70%를 적용토록 했다.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DTI의 경우에도 종전 수도권 내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던 것을 지난해 8월부터는 전 금융권에서 60%로 맞췄다.

정부는 LTV·DTI 규제를 손대지 않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할 방침이다. 대출자의 소득 심사를 강화하고 비거치·분할상환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올해 35%, 내년 40%, 2017년 말 45%까지 높일 계획이다.

/김보배 기자 bobae@

KRX금시장 개장 1시간 빨라진다

참가자들 거래편의 위해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운영

한국거래소는 시장참가자들의 거래기회 확대와 거래편의 제고를 위해 다음달 24일부터 KRX금시장 개장시간을 현행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긴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매거래시간은 일반투자자들이 익숙한 주식거래시간과 같이 현행 오전 10시~오후 3시에서 오전 9시~오후 3시로 확대된다. KRX금시장이 주식시장과 유사한 시장구조임을 감안해 거래시간을 주식시장과 일치시키기로 한 것.

거래소는 이와 함께 시가와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 중 허수성 호가로 인한 시세조종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임의종료(Random End)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거래소는 실물사업자의 대량거래와 특정 브랜드 금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해 다음달 3일부터 협의대량매매 제도를 도입한다.

실물사업자 간 kg단위로 경쟁매매시간 중 협의된 내용(거래상대방, 수량, 가격 등)을 시스템을 통해 거래소에 신청하면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시간 확대로 시장활성화가 촉진되고 국내 금시장의 가격발견을 선도해 장외거래 지표가격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협의대량매매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귀금속 제조업체 등 실물사업자의 KRX금시장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보배 기자

유진투자證 '유진 챔피언 하이일드…' 70억 한정판매

유진투자증권은 최근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 인기에 힘입어 '유진 챔피언 하이일드 스팩 랩어카운트'를 29일까지 70억원 한정 판매한다.

이 상품은 유진투자증권 고객자산운용팀에서 직접 운용하는 본점 운용형이다. 전체 운용자산의 40%는 스팩에 투자하며 나머지는 하이일드 채권과 국내 우량 채권에 각각 30%씩 투자한다. 하이일드 채권 편입 요건에 부합하므로 공모주 발행물량의 10%를 우선적으로 배정 받을 수 있어 스팩 공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김보배 기자

은행권 '모바일뱅크'로 인터넷銀 대응 맞불

금융사, IT기업 컨소시엄·통합 뱅킹앱 전략
모바일뱅크·핀테크 사업 등 강화 대응 나서

클릭 몇번만으로 예·적금 가입과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 초읽기에 들어갔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7일 인터파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획득을 위해 외부자문 기관 선임을 완료하고 인가신청서 작성에 착수했다.

다음카카오와 KT도 참여의사를 내비치며 인터넷전문은행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맞서 은행권에서는 모바일뱅크와 핀테크 사업 강화 등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 은행권, 모바일뱅크 '강화'

금융당국이 기존 은행의 단독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만큼 금융사들은 IT기업의 컨소시엄을 꾸리고 통합 뱅킹앱을 출시해 금융소비자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통합 뱅킹앱에는 중금리 대출부터 보험, 자산관리, 은퇴설계까지 포함돼 사실상 인터넷전문은행 기능을 수행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가장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곳은 우리은행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5월 인터넷 전문은행 시범 모델인 모바일 전문은행 '위비뱅크(WiBee Bank)'를 출범했다.

위비뱅크에서는 중금리 대출과 간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신용등급에 따라 연 5.9~9.7% 금리를 적용하는 '위비 모바일 대출'은 출범 한 달 만에 누적 대출액 100억원을 넘어섰다.

간편 송금 서비스인 '위비 모바일 페이'는 최초 한 번만 핀 번호를 등록하면 하루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계좌이체가 가능하다.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는 필요 없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최근 국내외 여행자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등 총 4가지로 구성된 모바일 보험도 내놨다.

이는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없이 스마트폰으로 5분 이내에 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계약현황 조회 등 사후관리 서비스도 이용가능하다.

◆ 조직개편-모바일 통합플랫폼 출시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모든 금융거래를 하나의 앱으로 제공하는 모바일 통합플랫폼 'i-ONE뱅크'를 오픈했다.

고객은 계좌이체와 조회 등 기존 스마트뱅킹 서비스는 물론 화상·채팅 상담, 개인별 맞춤형 상품추천, 은퇴설계와 자산관리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교통카드 충전과 바코드결제, 간편송금 등의 지급결제 서비스도 지원한다. 스마트폰 하나로 예적금 가입과 대출 상담 등 인터넷전문은행 수준의 은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핀테크기업의 다양한 서비스를 'i-ONE뱅크'에 쉽게 연결하고 탑재할 수 있도록 확장형 플랫폼 구조로 설계됐다.

저성장시대 수익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금융부 내 핀테크사업팀은 핀테크사업부로 확대 개편됐다.

무선 인터넷 뱅킹 성과도 가시적이다.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태블릿 PC 기반 뱅킹 시스템인 '모빌리티플랫폼'(Mobility Platform)이 출시 1년 만에 5만 건 이상의 고객 신규 거래와 신고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모빌리티플랫폼은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고객이 원하는 곳에서 각종 은행 업무를 처리해주는 '찾아가는 뱅킹 서비스'를 위해 개발된 태블릿 PC 기반의 무선 인터넷 뱅킹 시스템이다.

고객은 예금상품 가입과 카드 가입, 대출 신청 등 대부분의 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펀드상품 가입 업무도 가능해졌다.

SC은행은 내년 중소기업 대출상품 등 기업고객을 위한 뱅킹 서비스도 추가로 탑재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틀간 예비 인가 신청을 받은 뒤 10월경에 심사를 한 후 이르면 오는 12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업체를 발표할 계획이다. 본인가는 내년 상반기 진행될 예정이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하나금융,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금 전달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27일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창조경제 활성화와 청년(예비)창업자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날 오후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김정태(왼쪽 다섯번째) 회장 임종태 센터장(왼쪽 여섯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 제공

신한은행, 12억 위안 딤섬본드 공모발행 성공

최초 10억위안 초과 발행

신한은행은 지난 27일 홍콩에서 12억 위안 규모 (미화 1억 9000만 달러 상당)의 딤섬본드 공모발행에 성공했다고 28일 밝혔다.

딤섬본드는 홍콩 채권시장에서 발행되는 위안화 표시 채권이다. 신한은행의 딤섬본드 공모 발행은 2012년 이후 3년 만이다.

발행금리는 고정금리 4.2% 이나 통화스왑 거래를 통해 실질조달금리는 미 달러 3개월 Libor에 60bp를 가산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이 금리는 달러화 직접발행 시 예상되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신한은행 측은 설명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차별화된 실적과 독보적인 크레딧(Credit)을 바탕으로 발행액의 2배가 넘는 26억위안 규모의 투자수요를 모집할 수 있었다"며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10억위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증액 발행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과 신흥국 자금이탈 우려 등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차입시장 다변화를 위해 다양한 이종통화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금리로 역외위안화 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역외위안화 공모채권 발행에는 HSBC와 Standard Chartered가 공동주간사로 참여했다. /백아란 기자

12번째 '기업인 명예의 전당' 헌정식

IBK기업은행, 홍순겸·김영기·성규동 회장 선정

IBK기업은행은 28일 '기업인 명예의 전당' 헌정자로 홍순겸 동양피스톤 회장, 김영기 휴롬 회장, 성규동 이오테크닉스 회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기업인 명예의 전당'은 회사를 초우량 기업으로 성장시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을 선정하는 자리다.

이는 기업의 기술력과 수출실적, 기업가정신, 사회공헌도 등을 종합 평가해 선발한다. 이번 헌정자를 포함해 지금껏 32명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새롭게 선정된 홍순겸 동양피스톤 회장은 1967년 창립 이래 엔진용 피스톤 분야에 집중해 수입에 의존하던 자동차 엔진용 피스톤을 국산화한 기업인이다.

동양피스톤은 2014년 '월드클래스300', '뿌리기술 전문기업'에 선정됐다. 독일, 미국 등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내 1위, 세계 4위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김영기 휴롬 회장은 1979년 창립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회사를 국내 1위 원액기 제조 기업으로 성장시킨은 물론 제품을 전세계 76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성규동 이오테크닉스 회장은 1989년 3명의 직원과 사업을 시작해 세계 최초로 '반도체용 펜타입 레이저마커'를 개발했다.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장비 제조기업으로 2009년부터 5년 연속 코스닥 히든챔피언에 선정됐다.

한편 기업은행은 이들의 동판 부조를 서울 을지로 본점 1층 '명예의 전당 기념관'에 전시하고 각종 수수료 평생 면제 등 최고 VIP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해당 회사에는 헌정인의 흉상과 기념비를 세워 임직원과 국내외 바이어에게 헌정자의 기업가 정신을 알릴 계획이다. /백아란 기자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제12회 기업인 명예의 전당' 헌정식이 열린 가운데 권선주 기업은행장(왼쪽부터), 홍순겸 동양피스톤㈜ 회장, 김영기 ㈜휴롬 회장, 성규동 ㈜이오테크닉스 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기업은행 제공

잊을 만하면 터지는 건설사 분식 논란

삼성·GS·대우 이어 현대ENG도 의혹
업계 "공사진행 따라 원가상승 예상 힘들어"
시민단체, 공시 강화 등 회계처리 개선 지적

최근 현대엔지니어링이 분식회계 혐의가 보도되면서 국내 건설사의 '회계'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2013년에도 삼성엔지니어링과 GS건설, 대우건설 등도 비슷한 문제를 겪은 데 이어 또다시 대형건설사에서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김 모 전 현대엔지니어링 재경본부장(CFO)은 지난 23일 언론사에 분식회계 혐의를 제보했다. 김 전무는 상부의 지시로 지난해 영업이익을 3000억원가량 부풀렸다고 제기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회계를 조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원가율이다. 원가율이란 사업비에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공사수익과 직결된다. 예컨대 한 공사현장의 원가율이 90%이면 10% 가량의 수익이 남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원가율이 100%가 넘으면 손실이 발생한다.

대우건설도 현재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다.

대우건설 퇴직 임원이 지난 2013년 12월 금융감독원에 제보한 이 사건은 현재 금융당국이 징계수위를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대우건설이 대손충당금(장부상 미반영 손실금)을 낮게 책정한 점을 집중 조사 중이다.

대손충당금은 건설사가 주기적으로 역마진이 날 금액을 평가해 그때그때 손실로 처리하는 공사손실충당금을 말한다. 이 충당금은 공사 발주처가 갑자기 부도가 나는 등 앞으로 거액의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이 있을 때 활용된다.

이 밖에도 지난 2013년 초에는 GS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다. 두 업체는 해외사업장에서의 예정원가 상승분을 적기에 반영하지 않아 고의적으로 회계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2013년 당시 두 업체의 연간 적자는 각각 9373억원, 1조280억원에 달했다. 이는 곧 '어닝쇼크'를 유발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

이처럼 건설사들의 회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타 업계보다 긴 공사기간 때문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가 추진하는 공사는 길게는 3년에서 5년 이상도 걸릴 수 있다"며 "이때문에 당초 예산보다 자재원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많고 해외사업의 경우 현지 상황에 따라 공기가 지연된 경우도 많아 회계처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의 회계처리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28일 '건설업 회계처리 관행에 대한 비판적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6개 회사의 분기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1분기의 매출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익 조작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보이용자들에게 더욱더 강화된 공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총공사예정원가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공시하거나 미청구공사의 변동내역에 대해 자세히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또 "이를 감독하는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감리를 실시하고 분식회계 적발 시 엄격한 제재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형석 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하반기 주택 매매가 진정·전세난 여전

한국감정원, 부동산 전망 발표

올 상반기 가파르게 상승하던 주택매매가격이 하반기에는 다소 진정될 전망이다. 전세난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은 28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에서 '2015년도 상반기 부동산시장 동향과 하반기 전망'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상반기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저금리와 전세물량 부족, 매매수요 전환, 재건축 기대감을 매매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꼽았다.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연구원장은 "상반기는 지난해에 이어 본격적인 에코(베이비부머 자녀)세대의 시장진입과 저금리로 인한 월세확대, 전세상승에 따른 매매전환수요 증가 등으로 매매가격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하반기에 대해 채 원장은 "매매시장은 저금리기조 유지와 분양시장 활성화로 매매수요 확대와 가격 상승세가 예상된다"면서도 "정부의 가계부채 안정대책 등으로 상승세는 다소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주택매매가격은 상반기(1.8%)보다 낮은 1.1%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이 기간 전세가격은 2.2%(연4.9%) 상승, 주택거래량은 11%(연19%)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주택임대시장의 경우 수도권 재건축 이주수요와 월세전환 가속화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토지시장은 혁신도시와 개발사업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상업용부동산시장은 임대료의 약보합세와 공실 증가 추세 지속을 예상했다.

/김형석 기자

10억원 넘는 아파트 거래량 상반기 2776건 5년만에 최대

올 들어 6월까지 10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거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10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거래량은 총 277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971건보다 40.8% 증가한 것으로, 2010년 이후 반기별 거래량으로는 최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5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139건, 부산 71건, 대구 29건, 인천 9건, 대전 2건, 충남 1건, 충북 1건 순이다.

지난해부터 부동산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의 거래도 살아나고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주택시장이 양극화되면서 입지·상품성을 갖추면 가격에 대해 크게 문제 삼지 않는 수요자들도 늘었다"며 "하반기 분양 예정인 가락시영이나 서초우성2차 재건축 단지, 해운대 엘시티 등의 결과에 따라 고가 아파트시장의 분위기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59㎡에 'ㄷ' 주방… 공간한계 잊은 소형아파트

공급물량 포화·분양가 상승
소비자 눈높이 까다로워져
건설사, 특화설계 경쟁 치열

충주코아루퍼스트는 주방 특화설계를 도입해 전용면적 59㎡의 소형 아파트에 'ㄷ형 주방'을 선보였다.

올 하반기 건설사들의 설계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분양 러시로 공급 물량이 포화 상태에 이른 데다 가격까지 상승하고 있어 수요자들의 보는 눈이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분양됐거나 분양을 계획 중인 아파트는 총 41만8839가구다. 지난해 33만815호 보다 26% 증가한 수치다.

특히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많은 24만9295가구가 쏟아진다. 수도권에만 전년 동기(12만452가구)의 2배가 넘는 23만7491가구가 몰려 있다.

공급이 늘면서 분양가도 상승세다. 부동산114가 발표한 올 상반기 서울·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3.3㎡당 분양가는 1106만원으로 분양가 상한제 시행(2007년 9월) 직전인 2007년 상반기(1110만원) 수준을 회복했다.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한 선택권이 넓어졌지만 가격 부담까지 덩달아 높아지면서 설계특화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입지, 학군 등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이왕이면 공간 활용도가 높은 내실 있는 아파트를 사겠다는 것이다.

이에 건설사들 역시 수요자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춘 특화평면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봉담 센트럴 푸르지오'에 세탁부터 건조까지 한 곳에서 가능한 원스톱 세탁공간을 배치해 주부의 동선을 최소화했다. 또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알파룸, 팬트리 등으로 수납공간을 넓혔다. 특히 전용면적 59㎡A에는 대형아파트에서나 볼 법한 9자장을 안방 드레스룸에 배치해 성공 분양을 이끌었다.

한국토지신탁은 충북 충주첨단산업단지 '충주 코아루 퍼스트'에 주방 특화설계를 도입해 여심(女心)을 공략했다. 59㎡의 경우 소형 아파트에서는 보기 힘든 형태의 'ㄷ'자형 주방을 조성, 상부장의 수납량을 늘렸다. 여기에 아일랜드 식탁과 책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오픈장, 밭솥 등을 보관하는 소형가전장, 빌트인오븐 등을 제공한다.

포스코건설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12구역을 재개발한 '북한산 더샵'에 아일랜드 주방과 식사 테이블, 수납장 등을 연계한 다이닝 북카페를 배치했다. 이와 함께 주방 후드와 팬을 분리해 실내 소음과 유해가스 걱정을 줄이고 에너지 절감을 높였다. 드레스룸에 남성을 위한 미스터 파우더장도 배치했다.

/박선옥 기자 pso9820@

대우건설, 상반기 영업익 1563억… 6분기째 흑자

대우건설은 상반기 경영실적 잠정집계 결과(별도 기준) 영업이익 1563억원을 기록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29.8% 감소한 수치지만 6분기 연속 흑자세는 유지했다.

영업익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보다 감소했지만 2분기만 보면 1분기보다 44.6% 증가한 924억원을 기록, 하락폭을 줄였다.

이 기간 매출액은 1년 전보다 2.8% 증가한 4조7102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부동산 시장 회복으로 주택부문이 전년 동기대비 15.7% 증가한 1조5993억원을 보였다. 해외는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했다.

당기순이익은 12.1% 증가한 107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세와 대손충당금이 환입됐기 때문이다.

/김형석 기자

삼성 승부수 갤노트5… 일체형說 '시끌'

추정 사진서 일체형디자인 확인
메모리 확장·배터리 교환 불가
유저 커뮤니티에 불만글 봇물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5가 스마트폰 사용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삼성전자가 28일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엣지 플러스의 언팩행사를 알리는 초대장을 글로벌 주요 미디어, 파트너, 개발자들에게 동시 발송한 가운데 갤럭시노트5로 추정되는 사진이 잇달아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다음달 13일 뉴욕 링컨센터에서 언팩행사를 할 예정이다.

갤럭시노트5로 추정되는 제품 이미지.

28일 미국 IT 유력 매체인 GSM 아레나는 프랑스 IT전문 매체 노웨어엘스가 공개한 사진을 인용해 이와 같이 전했다. 이 사진을 촬영한 것은 중국 케이스 제작 업체 '닐킨(Nillkin)'이다.

사진속 갤럭시노트5의 뒷면은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에 적용된 글래스 메탈 디자인을 채용했다. 또 하단에는 S펜 수납공간과 마이크, 스피커, USB단자, 이어폰 단자가 위치하고 있다. 특히 S펜은 기존에 출시된 제품과 달리 펜이 스마트폰에 완벽하게 삽입돼 볼펜처럼 누르면 튀어나오는 방식을 채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에도 일체형 디자인을 적용했다는 점이 적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체형 제품으로 출시될 경우 메모리 확장성과 배터리 교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IT커뮤니티 사이트인 '클리앙'과 갤럭시 시리즈와 아이폰 사용자 커뮤니티인 '스마트폰 카페' 등에는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스마트폰 카페의 아이디 퐁XXX는 "갤럭시에 SD 확장이 안되다는 건 치명적이다. 보급형 라인이 아닌 이상 확장이 탑재돼야 할텐데"라는 반응을 보였다. 아이디 rhkdXXX은 "삼성페이가 부럽긴한데 배터리와 외장메모리를 양보할 수 없다. 카메라 기능에 큰 변화가 없으면 갤럭시노트4를 구입하는게 오히려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갤럭시노트5는 엑시노스 7422 프로세서, 4GB램, 2,560x1,440 해상도의 5.7인치 AMOLED디스플레이 등을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32

SK행복한학교 '사교육비 절감' 앞장

방과후학교 수강생 13만명
1200명이상 일자리 제공도

SK가 설립한 방과후 학교 '행복한학교'가 출범 5년만에 12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

28일 SK에 따르면 '행복한학교'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각 지자체·교육청과 손잡고 정규 교육과정 이후 수강할 수 있도록 설립한 방과후 학교다.

2010년 2월 서울 13개 초등학교에서 처음 문을 연 이후 올해 상반기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울산 총 4개 지역 127개 초등학교에서 4만 1327명의 초등학생에게 양질의 방과후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출범 이후 전체 수강생 수는 13만961명에 달한다.

교육부가 매년 발표하는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방과후학교에 참여한 초등학생이 미참여 학생보다 2014년 한해 사교육비를 약 59만원을 덜 지출했다. 올해 상반기 행복한학교 학생 수가 4만명을 돌파하면서 수백억원의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대구행복한학교 월암초등학교의 합주단이 연주를 하고 있다. /SK제공

설립 초기 200여명에 불과했던 교육강사 수가 5년만에 1257명으로 늘어나는 등 '행복한 학교'는 지역 기반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체 강사의 90%가 여성으로 특히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들, 이른바 '경단녀'들에게 경력 재출발의 기회와 직장과 가정 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행복한학교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으나 교육 강사 전체 인원의 평균 17%가 경단녀"라고 설명했다.

'대구행복한학교'의 방과후 돌봄교실 특강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은경씨는 "오래 일을 쉬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다시 일할 수 있다는 행복감이 훨씬 컸다"며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면서 힘든 부분이 적지 않지만 다른 직장보다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중학생, 초등학생 두 아들을 보살피며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한다"말했다.

한편 행복한학교재단은 연내 '행복한학교' 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행복한학교 측은 "SK가 보유한 스포츠단이나 정보통신기술(ICT)을 연계해 우수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교육의 질을 한단계 더 상향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조한진 기자 hjc@

판촉행사 덕 본 삼성SUHD TV

구형TV 보상 이벤트에
전달比 매출 3배 껑충

삼성전자 모델들이 삼성 디지털프라자 매장에서 주간 판매량 1500대를 돌파한 SUHD TV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SUHD TV의 판촉행사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SUHD TV 본격 판매로 국내시장에서 SUHD TV 주간 판매량이 지난달 말 대비 3배로 껑충 뛰어 1500대를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달 초 200만원대 JS7200시리즈 SHUD TV를 내놓으며 프리미엄 TV를 구매하려는 고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 주요했다고 분석했다.

JS7200은 기존 SUHD TV와 비교해 가격을 최대 30% 이상 낮추고 200만원대 제품도 출시되어 합리적인 가격에 최고의 화질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출시됐다.

JS7200(7시리즈, 50/55/60인치) 출시로 SUHD TV 라인업은 JS9500, JS9000, JS8500시리즈(55/65/78/82/88인치)를 포함해 모델수가 기존 8개에서 11개로 늘어나 고객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또 지난 10일부터 '구형TV SUPER 보상판촉'을 진행했다.

TV의 브랜드와 제조일자, 크기에 상관없이 55인치 이상 SUHD TV와 55인치 이상 UHD TV(JU6900, JU7000, JU7500 시리즈, 10개 모델)을 구매하고 구형 평판TV를 반납하는 고객에게 30만원을 추가 할인해 주는 행사를 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삼성전기, 2분기 영업익 804억… 전년比 100.9%↑

"車 부품사업 확대 추진"

삼성전기는 올해 2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1조 6981억원, 영업이익 804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매출은 전분기 대비 1.5% 감소, 전년동기 대비는 4.1%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10.9% 증가, 전년동기 대비는 100.9% 증가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에서 열린 2분기 실적 발표회에서 삼성전기는 신성장 동력으로 자동차용 부품 사업 계획을 밝혔다.

삼성전기는 부품과 모듈 사업의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자동차 분야 진입을 통해 신사업을 추진한다.

삼성전기는 "신사업 준비를 3~4년전부터 해오고 있었다"고 전하면서도 구체적인 매출 계획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단기적으로는 적층세라믹콘덴서(MLCC)와 카메라모듈 부문에서 매출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 아래 차동차용 부품 사업을 추진한다고 사측은 전했다.

올 2분기 부문별 실적을 살펴보면, 디지털모듈부문의 경우 전분기 대비 4% 증가, 전년동기 대비 8% 감소한 831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칩부품부문은 전분기 대비 5% 감소, 전년동기 대비 9% 증가한 5071억원의 매출을 나타냈다.

기판부문은 전분기 대비 4%, 전년동기 대비 6% 감소한 374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임은정 기자

LG전자

'디오스 인버터 광파오븐' 조리시간 최대 35% 단축

LG전자는 '디오스(DIOS) 인버터 광파오븐'을 이번 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디오스 인버터 광파오븐'은 국내 최초로 인버터 기술을 적용해 마이크로웨이브의 세기를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다.

이 제품은 인버터 기술을 적용해 오븐자동요리 모드로 조리하는 시간을 기존 제품대비 최대 35% 단축시켰다. 해동 성능도 강화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에서 LG전자 모델이 '디오스 인버터 광파오븐'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또 오븐자동요리 모드 사용 시 기존 제품 대비 소음을 약 7% 줄여 39.9dB로 국내 최저 수준을 달성했다고 사측은 전했다.

가격은 출하가 기준 87만 9000원이다.

/임은정 기자 eunj71@

국산차, 휴게소·피서지 무료정비 서비스

이달 31일~내달 3일 운영 공기압 점검·냉각수 보충

르노삼성은 내달 15일까지 정비 금액별 경품추첨 행사

쉐보레 긴급출동 서비스 모습 /한국지엠 제공

국내 완성차업체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계 차량 점검에 나섰다.

현대차는 이달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와 피서지 9개소에 임시 서비스코너를 운영한다.

위치는 △경부선 망향(부산방향) △영동선 횡성(강릉방향) △중앙선 치악(부산방향) △중부내륙선 충주(마산방향) △서해안선 행담도(목포방향) △호남선 정읍(천안방향) 등 고속도로 휴게소와 △14번 국도의 통영휴게소 △안면도 꽃지해안주차장 △전북 무주구천동관광특구 주차장 등 피서지다.

각 서비스코너에서는 방문 고객에게 차량 기본성능·안전 점검을 비롯해 냉각수, 각종 오일류와 전구류 등 소모품 무상 교환과 타이어 공기압 점검, 항균·탈취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아차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안면도 꽃지해수욕장, 무주 구천동휴양지 등 유명 휴양지 2곳 △경부선 기흥휴게소·칠곡휴게소(이상 부산방향), 호남선 백양사휴게소(광주방향), 중앙선 치악휴게소(부산방향), 서해안선 화성휴게소(목포방향) 등 고속도로 휴게소 5곳 등 총 7곳에서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각 장소에 임시 서비스 공간을 마련하고 타이어 공기압, 냉각수, 엔진 오일, 와이퍼 블레이드 등 차량별로 총 16개 항목에 대한 무상 점검을 한다.

한국지엠 쉐보레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충남 태안군 꽃지해수욕장과 전북 무주군 덕유산국립공원에서 하계 휴양지 서비스를 한다.

장거리 운행에 필수인 엔진,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등 기본 안전 점검 서비스를 한다.

필요 시 와이퍼 블레이드, 전구류 등의 소모성 부품과 자칫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냉각수·엔진오일 보충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차량에 문제가 발생해 정비가 필요한 고객은 쉐보레 고객센터(080-3000-5000)를 통해 가장 가까운 서비스 센터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쌍용차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전국 주요 고속도로 하행선 △화성(서해안) △여주(영동) △천안(경부) 휴게소를 비롯해 주요 휴양지 △무주구천동(전북 무주군) △꽃지해수욕장(충남 태안군) 등 5곳에서 무상점검을 실시한다.

△장거리 여행에 필요한 에어컨 및 타이어 점검 △와이퍼 블레이드, 벌브류 등 소모성 부품 무상교환 △냉각수, 엔진오일, 브레이크 오일 보충 △차량 실내 살균탈취 서비스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쌍용차 홈페이지(www.smotor.com)를 참고하거나 고객센터(080-500-5582)로 문의하면 된다.

르노삼성은 8월 15일까지 전국 470여개 직영·협력 서비스점에서 정비 이벤트를 펼친다.

7만원 이상 정비를 받은 고객 중 추첨을 통해 2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10명), 5만원 상당의 아웃백 스테이크 상품권(300명), 2만원 상당의 모바일 정비쿠폰(1000명)을 증정한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르노삼성 정비점을 방문하지 않은 고객이 3만원 이상 정비 시 모바일 정비 쿠폰 2만원권을 선물한다.

안경욱 르노삼성 애프터세일즈 상무는 "이번 행사로 정비고객 입고 증대는 물론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정필 기자 roman@metroseoul.co.kr

음악·웹툰으로 만나는 쏘나타 역사

현대차, 30주년 기념 모터쇼 9월초까지 전국 4곳 순회

현대차는 쏘나타 출시 30주년을 기념해 '쏘나타 모터쇼'를 8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개최한다. /현대차 제공

현대자동차는 쏘나타 출시 30주년을 맞아 '쏘나타 모터쇼'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쏘나타 모터쇼는 8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전국 4개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된다.

이번 쏘나타 모터쇼는 30년 전 첫 선을 보인 1세대 모델부터 현재의 7세대까지 쏘나타의 7가지 라인업을 음악과 웹툰 요소를 통해 선보인다.

쏘나타 모터쇼는 컨테이너 구조물을 활용해 총 2개 층으로 구성된다.

1층에서는 7세대(LF) 쏘나타의 각 파워트레인별 모델과 함께 7종의 실물 엔진과 7단 DCT(듀얼 클러치 변속기) 등을 만날 수 있다.

1.6 터보와 1.7 디젤 모델을 직접 운전해 보는 기회도 제공된다.

또 현대차는 ▲파워트레인별 메시지를 유명 웹툰 작가 7인이 재해석한 작품 전시 ▲가수 박진영과 협업한 쏘나타 뮤직비디오 영상 ▲차종별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줄 소품 전시 등을 진행한다.

행사장 2층에는 1세대부터 6세대 쏘나타에 이르는 총 6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정용기 기자

현대차 '달리는 공연장' 방방곡곡 누빈다

'문화가 있는날' 확산 앞장 문화체육관광부와 업무협약

28일 서울 종로구 삼청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국제화상회의실에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과 정진행 현대자동차그룹 사장이 '문화가 있는 날'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현대자동차그룹은 28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정진행 현대차그룹 사장,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가 있는 날'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문화가 있는 날은 문체부와 문화융성위원회가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영화관, 미술관 등 전국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캠페인이다.

이번 MOU를 통해 현대차그룹은 문화가 있는 날이 전국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3.5톤 트럭을 개조한 다목적 이동형 공연 차량을 기증할 계획이다.

다목적 이동형 공연 차량 프로젝트는 공연 장비를 차량에 장착해 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농산어촌과 섬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생활의 즐거움을 전하기 위해 현대차그룹과 문체부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현대차그룹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임직원 2만여명 대상 정시 퇴근과 문화공연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스마트 컬쳐 데이'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문화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문화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 60개 문화예술회관과 함께 지역 문화소외계층 1만명을 초청해 공연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해피존 나눔 티켓' ▲전국 15개 군부대를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실시해 1만명의 군장병, 가족을 초청하는 '군인의 품격' 등 다양한 문화예술 사회공헌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정용기 기자 yonggi@

아시아나항공, 내달부터 운항 스케줄 정상화

아시아나항공은 메르스로 인해 감편 운항했던 중국, 일본, 동남아 등의 노선 스케줄을 8월부터 정상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아시아나는 메르스가 종식 국면에 접어듦에 따라 내달부터 중국 일부 비정기 노선을 제외한 대부분 노선의 운항 스케줄을 정상화한다.

일본 노선은 인천~하네다 6회 감편(8월1~6일)을 제외한 나리타, 나고야 등 전 노선이 정상적으로 운항될 예정이다.

조규영 아시아나항공 여객본부 부사장은 "메르스 영향으로 감편해온 운항 스케줄을 조기에 정상화하게 됨에 따라 휴가철을 맞은 고객들이 여행 일정을 계획하는데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용기 기자

한화테크윈, 新 비전 선포 "10년來 매출 10조원 돌파"

한화테크윈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김철교 사장을 비롯한 회사 임직원, 노조대표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新)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한화테크윈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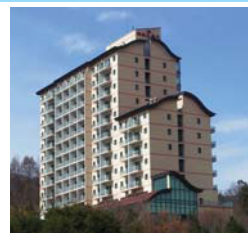
한화테크윈은 지난 27일 여의도 63빌딩에서 김철교 사장을 비롯한 회사 임직원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新)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서 한화테크윈은 '글로벌 항공방산 및 첨단장비 솔루션 리더'라는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고 2020년 매출 5조원, 2025년 10조원을 돌파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기존 주력사업인 엔진, 지상방산, 시큐리티 장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에너지장비, 산업용 장비, 로봇 분야를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화테크윈은 목표 달성을 위해 영업·유통 혁신, 비즈니스 모델 혁신, 신성장 동력 혁신의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 사장은 "한화테크윈은 한화그룹의 핵심 성장축인 기계·방산 부문의 주력회사로서 그룹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가자"고 말했다. /정용기 기자

금강산리조트
창사25주년 특별분양
제주도와 동해바다 금강산까지
395만원에 별장을...
소유권 등기로 안정성, 법인 무기명 카드 발급
그 곳에 가고싶다.
동해안 최북단 해금강으로 가는길..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곳으로 초대합니다.
회원특전
24시간 상담 (공휴일 상담 가능) 02-541-0113
1. 100% 소유권이전등기
2. 연간 30일 사용
3. 전국 9 지역 리조트 정회원대우 사용
4. 무료숙박 15매 증정
5. 10년후 100% 반환
6. 해외 골프장 회원대우(필리핀세부,중국청도)
신청금 50만원 입금계좌 : 기업은행 244-025348-04-029 ㈜미봉
※신청금 입금순으로 소유권 등기 바닷가 객실 배정합니다.
*본 회원권은 이용권이 아니며 관광진흥법에 의거하여 분양승인을 받은 정식 리조트 회원권 입니다.
강원도 고성 금강산리조트(229 객실) 실제 전경입니다.
제주 금강산 리조트
부산 해운대 리조트
도고 리조트
설악 리조트
지리산 리조트
나주 스파 리조트
경주 리조트
금강산리조트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53-4 남도빌딩 5층 (주)미봉
24시간 상담 (공휴일 상담 가능)
02-541-0113

수익 못보는 카카오택시, 유료화 되나

점유율 높지만 무료서비스로 수익 직결 안돼
전문가 "수익모델 창출·적절한 유료정책 필요"

카카오택시가 출시 4개월 만에 누적 콜수가 1000만건을 돌파했다. 지난 6월 말 500건을 돌파하고 1달 만에 그 배에 달하는 기록을 세운 것이다. 하루 평균 콜수도 한달 전 12만건을 기록했지만 7월 말 기준으로 21만콜을 넘어섰다.

다음카카오의 카카오택시 열풍과 카카오톡 샵 검색 등 신규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음에도 인기상승만큼 올해 2분기 수익과 직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카카오택시를 무료료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카카오의 수익 개선 구원투수로 카카오택시의 유료화 가능성이 제기 되고 있다.

28일 하이투자증권의 이민아 연구원은 "2분기 영업이익 개선 폭은 전분기 대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카카오 택시, 카카오 페이 등 신규 서비스 론칭에 따른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광고 선전비는 전분기대비 29%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IT 업계 한 관계자는 "다음카카오는 선 트래픽 확보 후 수익화 전략을 펼치고 있어 수익모델 구축에 적절한 타이밍을 못 찾을 경우 인기만큼의 수익을 거둘 수 없을 것"이라며 "시장 반응을 보고 인기를 얻고 있는 서비스에 적절한 유료화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카카오 택시 트래픽을 일부 활용할 수 있는 대리운전 서비스, 고급택시 서비스 등 택시 인접 영역의 서비스가 준비되고 있다"면서 "다음카카오는 수익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 수익 모델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도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향후 유료화를 통한 수익모델 창출 등을 고민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우선 카카오택시는 다음카카오의 새로운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구원투수라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택시의 유료화로 이용자수가 위축될 수 있는 등의 고려 사항으로 수익 모델 결정에 고민이 많겠지만 지금 가장 새로운 O2O 서비스로서 한국 인구의 4분의 1이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택시에서 수익 모델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크다"며 "현재 점유율이 높아도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수수료 등을 책정해서 O2O사업의 딜레마를 극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카카오택시의 유료화에 대해 승객과 기사들의 반응은 수익화가 합리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카카오택시로 하루 5건 이상 승객을 태우는 기사 A(58)씨는 "가입 때부터 언젠가 유료화가 될 것임을 예상했던 부분"이라며 "기사들 사이에서는 건당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출퇴근 시 카카오택시 서비스를 대부분 이용하는 직장인 A모씨(26)는 "돈을 기존 업체와 같이 받으면 사용을 고려하겠지만 1000원 보다 싸다면 이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LGU+, 간편결제 '페이나우' 부정거래 막는다

FDS2.0 적용·DR센터 구축

28일 LG유플러스 본사에서 사내 홍보 모델들이 페이나우의 부정거래탐지시스템 2.0 적용과 재해복구센터 구축을 알리고 있다. /LG유플러스 제공

LG유플러스는 간편결제서비스 '페이나우' 이용자의 안전한 결제를 위해 부정거래 탐지시스템 2.0(FDS 2.0) 적용과 재해복구(DR)센터까지 구축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페이나우는 가입자별 결제 패턴과 결제내역을 기기정보와 결합, 간편결제 서비스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분석하고 감지할 수 있는 'FDS 2.0' 구축을 완료하고 이달 1일부터 적용했다.

FDS 2.0은 회원제 기반으로 제공되는 간편결제 서비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증오류 ▲비정상 단말기를 통한 결제시도 ▲동일 이용자의 과다 결제 ▲동일 신용카드·계좌의 과다 결제 ▲결제카드 등록오류 패턴 ▲결제 결과 메시지 분석 등의 다양한 시나리오가 반영됐다.

이에 따라 불법적으로 타인 명의를 도용해 페이나우에서 결제를 시도할 경우 사전에 설정된 위험 항목 감지 시나리오로 이를 탐지해 즉시 위험 단계별 대응 조치가 자동으로 가동된다.

LG유플러스는 업계 최고 수준의 DR센터도 구축 완료했다. 서울과 경기지역에 위치한 DR센터에 동일한 운영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페이나우를 포함한 전자결제서비스 전체에 적용된다.

서울 지역에 정전, 지진 같은 심각한 자연 재해나 비상 상황이 발생돼 '페이나우' 등 결제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 즉시 경기 DR센터에서 시스템이 가동되어 끊김 없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정문경 기자

스마트러닝 '박스쿨' 레드닷 어워드 대상 수상

SK텔레콤·KAIST

소외지역 교육격차 솔루션 세종창조혁신센터 첫 적용

28일 세종시 조치원읍에 위치한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에 설치된 '박스쿨' 내부에서 행사 진행요원들이 SK텔레콤의 스마트로봇 '알버트'를 활용한 스마트러닝을 시연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에 첫 적용된 스마트러닝 솔루션인 '박스쿨'이 디자인 콘셉트 부문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SK텔레콤과 KAIST는 소외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솔루션인 박스쿨이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손꼽히는 '레드닷 어워드'에서 디자인 콘셉트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스쿨은 SK텔레콤 신사업추진단(컨버전스본부)과 KAIST 산업디자인학과(배상민 교수팀)간 공동으로 진행된 산·학 협업과제의 산물로, 교육 인프라 낙후 지역을 대상으로 설계한 모듈형 이동식 컨테이너 스마트 교실이다.

전원공급이 어려운 곳에서도 태양광 패널설치로 태양열을 활용한 스마트 교실 운영이 가능하며, 빗물 등 자원을 에너지원으로 사용가능해 확장성·독립성 등이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했다고 SK텔레콤은 설명했다.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에 첫 적용된 박스쿨은 세종시내 지역교사를 대상으로 '스마트로봇 코딩 스쿨' 확산을 위한 교원양성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이재호 SK텔레콤 CEI추진실장은 "창의적 발상을 통해 교육 기회 확산을 현실화한 박스쿨과 상상력과 창의성 그리고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창조경제'는 일맥상통하다"며 "박스쿨을 활용해 벽오지 교육 기회 제공은 물론 농업형 창조마을 조성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문경 기자

네이버-청년위 'e-커머스 드림' 참가자 모집

네이버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이하 청년위)가 청년창업가 집중 육성 프로젝트 'e-커머스 드림 청년장사꾼 프로젝트'의 하반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e-커머스 드림은 창업에 의지와 열정을 지닌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네이버와 청년위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프로젝트다. 온라인 쇼핑몰 창업 경험이 없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네이버에 따르면 7월 29일부터 8월 28일까지 하반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자들은 연말까지 창업스쿨과 창업경진대회를 진행하면서 전문가 멘토링, 수수료 지원, 창업 자금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통해 창업 경험을 쌓아갈 수 있다.

이번 하반기 e-커머스 드림 프로젝트에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을 포함한 전국 20개 기관이 함께 할 의사를 밝히면서 참가자들 또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네이버와 청년위가 지원 하는 e-커머스 드림 하반기 참가자 모집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9일 시상식을 끝으로 4개월 간의 대장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한 상반기 프로젝트에는 전국 10개 시도 330여 명의 청년창업가들이 참가했다. /정문경 기자

한화큐셀·한화차이나, 中 희망학교에 태양광 설비 기증

한화큐셀과 한화차이나는 중국 청소년발전기금회와 손잡고 중국 빈곤지역 학교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했다.

한화큐셀과 한화차이나는 28일 중국 북서부 칭하이성 다퉁현현 지역의 시에거우상 희망학교에 30kW 규모의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기증식(사진)을 했다.

기증식에는 김영락 한화차이나 상무, 장병호 한화큐셀 AP 다운스트림사업부 중국영업팀장, 양샤오위 중국청소년발전기금회 부비서장 등이 참석했다.

김 상무는 "한화·희망공정 해피선샤인 캠페인은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을 통해 풍요로운 인류의 미래에 기여하는 게 목적"이라며 "한화그룹은 중국 지역사회와 힘을 합쳐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큐셀과 한화차이나는 2013년부터 중국 빈곤지역 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무료로 기증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13년 12월에는 후베이성 우펑현 지역의 위양관쩐 초등학교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기증했다.

중국청소년발전기금회는 1989년 공산주의청년단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사회단체로 희망공정을 진행한다. /정용기 기자 yonggi@

신격호 vs 신동빈 vs 신동주… 골육상쟁

롯데홀딩스, 긴급이사회서 신격호 회장 해임
"결국 롯데 주인은 신동주가 될 것" 분석도

신동빈 롯데 회장.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신동주 전 日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60) 한국 롯데 회장이 아버지 신격호(94) 총괄회장에게 대립각을 세우며 롯데의 후계 구도가 다시 안갯속이다.

불붙은 부자(父子)간의 대립은 국내 롯데로 번지며 신동빈, 신동주(61) 형제 간 경영권 분쟁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업계는 신 총괄회장이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롯데의 소유권을 넘기는 작업에 대해 신동빈 회장이 반발한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28일 신동빈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에서 전격 해임한 것과 관련, 일본롯데 한 관계자는 "당초 신격호 대표이사 회장이 소유권은 장남 신동주에게 경영권은 차남 신동빈에게 맡기려 한 것 같다"며 "90을 넘은 나이에 소유권 승계정리 차원에서 자신을 제외한 홀딩스 이사들을 해임한 것에 대해 차남 신동빈이 대립각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롯데홀딩스는 이날 오전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격호 대표이사 회장을 해임했다. 이는 27일 오후 신 총괄회장이 자신을 제외한 6명의 롯데홀딩스 이사를 해임한 것에 대한 조치다. 이사회는 총 7명이며 신 총괄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회장·츠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가 포함돼 있었다.

신 총괄회장은 롯데홀딩스 이사회를 해임할 당시 신 전 부회장을 동행한 상태로 일본을 방문했었다.

일본롯데 관계자는 "동행한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 사이에 모종의 대화가 오갔을 것이며 대화 내용은 신 전 부회장의 본격적인 승계 작업에 대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는 신 총괄회장이 약 50%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실질적인 주인이다. 또 국내 롯데를 지배하고 있는 'L투자회사'의 실질적인 주인도 신 총괄회장이다. (본지 7월1일자 '신동빈의 롯데, 아직 시기상조' 기사 참조)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신 총괄회장이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소유권뿐만 아니라 경영권마저 넘기려 하자 신동빈 회장과 츠쿠다 다카유키 대표가 손잡고 신 총괄회장을 견제하려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과 한국 롯데를 쥐고 있는 신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대립각을 세우면 신동주 전 부회장만 유리해 진다"며 "신 회장이 경영권은 방어할 수 있을지 몰라도 롯데의 주인은 결국 장남 신동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그룹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무리하게 고령인 신 총괄회장을 모시고 가 일방적으로 롯데홀딩스 이사를 해임했다"며 "이번에 신 총괄회장을 홀딩스의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했다. 경영권과 무관한 분들이 신 총괄회장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고 신 총괄회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고 입장을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명예회장으로 선임됐으며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은 무산됐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홈플러스 편의점 '365플러스' 300호점 돌파

1년사이 점포수 2배 증가
매출 신장률도 22% 신장

홈플러스(대표 도성환)는 자사 편의점 '365플러스'가 28일 고양시 일산덕양구 성사동에 원당대림점을 오픈하면서 300호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365플러스는 2014년부터 본격적인 가맹점 모집을 시작해 이번 300호점을 돌파하게 됐다. 지난해 7월 기준 점포수가 145개였던 점을 감안하면 1년 사이 2배 이상 몸집을 불린 셈이다. 이에 따라 올해 1~7월 기준 365플러스 전체 매출은 전년대비 200% 이상 신장했으며 전년 동기 매출신장률 역시 22%를 기록했다.

홈플러스 측은 ▲점포 개발 및 조기정착 지원제도 ▲맞춤형 상품·매대·프로모션 등 '과학적 경영지원'▲수요예측 자동 발주 시스템 등의 전략을 통해 내실 있는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365플러스는 입지부터 3단계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수익안정성과 지리적 데이터, 기대수익 등을 판단해 투자부담이 최소화됐을 때 출점한다. 또 홈플러스 및 익스프레스와 연계해 6만여 종의 상품 중 지역별·상권별 차별상품들을 선별해 판매한다. 홈플러스 측에 따르면 365플러스의 취급상품은 기존 편의점 대비 200~400종 가량 많다.

홈플러스 임교상 개발건설부문장은 "최근 은퇴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계속하려는 분들과 부업을 계획하는 주부님들의 365플러스 창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다른 편의점 또는 슈퍼마켓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도 365플러스로 전환하려는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젊은 감성으로 리뉴얼한 '맥스웰하우스'

동서식품, 신규 TV광고 공개

동서식품(대표 이광복)은 '맥스웰하우스' 캔커피의 신규 TV 광고를 방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최근 젊은 감성으로 디자인을 리뉴얼한 맥스웰하우스 캔커피를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광고 모델로는 tvN 드라마 '미생'에서 주목받은 배우 변요한이 출연해 젊은 감성을 한껏 살렸다.

내달부터는 20~30대의 기호에 맞춘 '야구' 버전의 광고도 공개된다. 해당 광고는 케이블TV 스포츠 채널 및 네이버 야구, 다음 야구 등 온라인 채널에서 만날 수 있다.

/정은미 기자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추석까지 연장

최대 2시간까지 허용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가 9월 말 추석 명절까지 연장됐다. 28일 경찰청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239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주차허용 전통시장은 총 239곳이다. 주차가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최대 2시간이다. 해당 시장의 요구에 따라 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 경찰청과 행자부는 지난 6일부터 이달 말까지 전국 20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했으나 방문객이 아직 예년에 미치지 못한다는 상인 의견을 감안해 연장을 결정했다.

신라면세점, 알리바바 '티몰' 입점

中 현지 고객잡기 나서

호텔신라(대표 이부진)는 신라면세점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티몰'에 입점한다고 28일 밝혔다. 중국 현지에서 중국인 고객 잡기에 나선 것이다.

신라면세점은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티몰 내 '글로벌 면세점 서비스'에 입점해 'O2O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O2O서비스는 중국인 관광객이 여행을 떠나기 전 '티몰 글로벌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한국 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때 공항에서 구매 상품을 찾아가는 서비스다.

기존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중국 온라인몰(CN몰)뿐만 아니라 티몰에서도 모바일 쇼핑에 익숙한 현지 중국 고객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현 기자

LG생건, 제니스 지분 70% 인수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이 국내 색조화장품 전문 OEM·ODM 업체 제니스의 지분 70%를 1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제니스는 2001년 10월 강원도 춘천시에 설립, 자체 화장품 브랜드 없이 색조 제품 개발·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다. 지난해 매출은 179억원, 영업이익은 11억원을 기록했다.

이 업체는 제품의 제조·충전·타정·포장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생산이 어려운 립스틱·쿠션 등의 제품 제조와 수작업 위주의 파우더 제조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가족친화경영으로 사원 가족의 행복까지”

연중기획 가정이 있는 직장

㉑ 유한킴벌리

임산부 우선석을 사용하고 있는 여직원의 모습. /유한킴벌리 제공

유연 근무·평생 학습 시스템 등 가족친화경영·복지제도 실천

일맘 캠페인·아버지 징찬학교 등 임직원 대상 사내 프로그램 운영

유한킴벌리(대표 최규복)는 단순 육아맘 지원이 아닌 사원 가족의 행복에까지 초점을 맞춰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유연한 근무제도와 평생학습 시스템으로 직원들이 '일과 삶을 조화' 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2008년에는 '가족친화우수기업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유한킴벌리는 지난해부터 '일맘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이 캠페인은 '일맘'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일맘은 '워킹맘'을 일컫는다. 일맘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시작됐다. 작년에는 강연 프로그램 '세바시'와 함께 일맘들을 위한 강연을 두 차례 진행해 일맘의 호응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올해에는 육아웹툰 '그림에다'와 함께 '일맘들의 일상'을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해 '일찍 나서도 늦은 출근' '일맘의 퇴근 일상' 등의 이야기로 일맘들의 공감대를 얻고 있다. 10월에는 '일맘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밖에 강연과 토크쇼·공연 등 일맘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유한킴벌리는 또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족관계의 질 조사'를 격년마다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첫 시행한 이후 올해 두 번째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는 사원과 사원 가족 간의 관계의 질을 높여 경영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취지다. 조사 결과는 경영 전략에도 반영하지만 사원 가족들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도록 휴가정책 등 세대별로 필요한 프로그램으로도 개발된다.

특히 유한킴벌리는 사내 정책을 통해 남성들도 육아에 동참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남성 사원을 대상 '아버지 징찬학교'는 '행복한 아버지가 행복한 일터를 만든다' 등의 주제로 수업을 열고 있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저출산과 가정 붕괴로 대표되는 현실에서 가정의 역할 특히 남성의 역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아버지 징찬학교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외에도 유한킴벌리는 1인당 연간 220만원을 지원해 주는 선택적 복지프로그램, 가족간병휴직, 평생학습지원 등 사원·가족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족 친화 문화 조성을 위해 정시퇴근을 장려하고, 가족초청행사, 신혼부부 대상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김수정 기자 ksj0215@metroseoul.co.kr

유한킴벌리 주요 가족친화 제도

제도	세부 내용
유연한 근무체제	관리직 오전 7~10시 출근 시간 자율 선택, 생산직 4일 근무·4일 휴무·평생학습지원, 영업직 정기 출퇴근 없이 업무 수행
보육육아지원	육아휴직은 출생 후 8년 이내, 수유실 운영, 아버지 학교, 직장보육 시설
자녀 학자금 지원	유아교육비, 대학졸업까지 자녀학자금, 장애자녀학자금
선택적 복지프로그램	1인당 연간 220만원 사용 가능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 자발적 선택)
가족간병휴직	가족간병 위한 휴직 (3개월 이내)
평생학습지원	사원과 가족 온라인어학연수원 (500여 과정, 365일 사용)
정시퇴근 장려	7시 30분 이후 지정근무공간을 제외한 일괄소등 (본사)
가족초청행사	대전공장 철쭉제 연 1회 실시
지역사회 공헌 활동	신혼부부 대상 생명사랑학교 운영 등

공동기획 :

효율적인 출·퇴근제도 '스마트워크'

2011년 부터 스마트워크 도입 수평·창의적 근무형태가 특징 교대·재택 근무 등 확대 시행

스마트워크를 도입한 이후 본사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도 높아졌다. 사무실에서 회의하는 직원들의 모습. /유한킴벌리 제공

유한킴벌리(대표 최규복)에서 근무한지 14년차가 된 김미화(여·36) 부장의 출근 시간은 9시30분이다. 여유로운 출근 시간 덕분에 9살, 6살 두 딸의 유치원 길을 직접 배웅해준다. 김 부장이 바쁜 아침 시간을 이렇듯 보낼 수 있는 것은 유한킴벌리가 가족친화경영을 위해 도입한 '스마트워크' 덕분이다.

유한킴벌리는 지난 2011년부터 스마트워크를 도입했다. 스마트워크는 시간·공간·자원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수평적이고 창의적인 기업문화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특징이다.

유한킴벌리는 스마트워크를 도입하면서 기존에 시행하던 관리직의 시차 출퇴근제와 생산현장의 4조2교대 근무를 기반으로 재택근무 등을 확대 시행했다. 또 본사 외에 죽전 이노베이션센터와 군포에 스마트워크 센터를 개설했다. 본사나 공장 근무자들이 업무상 필요하거나 집이 가까운 사원들이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임원을 포함한 전사원이 본인의 업무에 따라 가장 편리한 어느 자리라도 앉을 수 있는 오픈 좌석 시스템도 구축됐다. 이를 위해 유한킴벌리는 임원실도 없앴다. 이를 통해 공간 효율성을 높이고 임원들이 사원들 가까이 찾아가서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또 사장부터 전 사원이 '님'으로 동등하게 부르는 수평적 호칭제도를 도입했다. 일주일 내내 자유로운 복장이 가능한 복장 전면 자율화, 점심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돕는 탄력점심시간제 등을 시행해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모바일 오피스 시스템을 구현, 집·영업현장·해외 출장 등 모든 곳에서 실시간 근무도 가능해졌다.

유한킴벌리에 따르면 2011년 스마트워크를 도입한 이후 직원들의 업무 몰입도는 눈에 띄게 높아졌다. 지난 2013년 조사에서는 최근 1년 사이 업무 집중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율이 77%로 나왔다. /김수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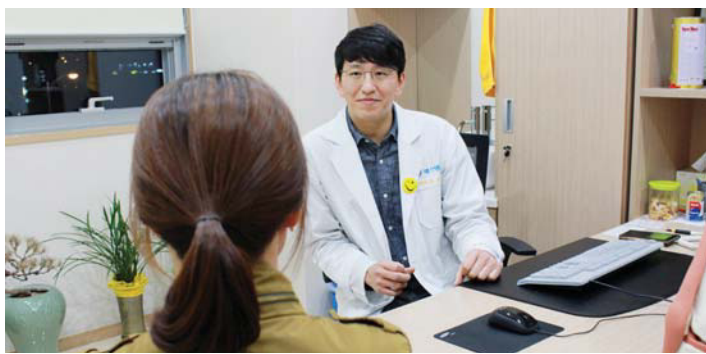
주말만 반짝 운동… 무릎엔 '毒'

격한 움직임에 손상 누적
퇴행성관절염 유발 원인
평소 관절 강화운동 필요

용인분당예스병원 도현우 원장이 진료를 하고 있다.

주말에 하는 야구나 축구 등 격한 운동이 퇴행성관절염을 유발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 영상의학전문의 크리스토프 스텔링(Christoph Stehling) 박사는 "주말에 농구, 축구 같은 격한 운동을 중년기에 하게 되면 무릎 등에 보이지 않는 손상이 누적된다"면서 "나중에 퇴행성관절염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온라인 의학뉴스 전문지 헬스데이 뉴스를 통해 밝혔다.

스텔링 박사는 남성 100명, 여성 136명 등 236명(45~55세)을 대상으로 각자 운동량에 대해 설문조사 후 자기공명영상(MRI)으로 무릎을 관찰한 결과 달리기, 점프 등 체중이 실리는 강도와 충격이 높은 움직임을 요하는 격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골수의 수액 형성, 연골·인대 손상 등이 발견됐다.

그는 이러한 작은 손상들이 오랫동안 누적되면 퇴행성관절염으로 이어지게 된다면서 몸을 비틀고 점프하고 회전시키는 동작이 많은 축구와 농구가 특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척추 관절 질환 특화 용인분당예스병원 도현우 원장은 "주말에만 격하게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퇴행성관절염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퇴행성 관절염은 다리를 뻗고 바닥에 앉으면 무릎 뒤쪽이 닿지 않거나, 이전에는 무릎이 붙었는데 지금은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벌어지고 아파서 쪼그려 앉지 못하는 등 다양한 증상을 나타낸다. 특히 운동 후 저녁에 관절이 아프고 부어서 잠들지 못한다면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해봐야 한다.

퇴행성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운동을 우선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다. 실내에서는 쿠션감 있는 실내화를 실외에서는 운동화는 신는 것이 도움 된다. 맨발로 걷거나 굽이 낮은 신발은 충격을 그대로 흡수하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평소 쉽게 할 수 있는 관절 강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도 좋다. 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양쪽 무릎을 쭉 편 다음 발목을 몸 쪽으로 잡아당기거나,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양쪽 다리를 직각으로 들어 올린 후 무릎을 쭉 펴주는데 허리가 들리지 않도록 복근에 힘을 주고 버티는 것이 관절 강화에 도움이 된다.

/최치선 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이화의대, 편도선 줄기세포로 부갑상선 재생

조인호 교수팀 세계 첫 성과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학장: 김경효)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사람의 편도선 조직으로부터 추출한 줄기세포를 실험동물의 생체에 이식해 부갑상선 조직을 재생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화의대 편도줄기세포 연구센터장인 조인호(사진) 교수와 박윤신 교수는 '매트리젤(Matrigel)과 혼합된 분화 편도줄기세포 이식에 따른 부갑상선 조직 전절제 동물에서의 부갑상선 세포 기능 복원'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생체 재료학 분야의 저명한 국제학술지인 '바이오머티리얼(Biomaterials, 2014년 피인용 지수 8.557)' 온라인 판 7월호(2015년)에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서만 연 4만건 이상 시행되는 편도선 절제 수술 후 제거돼 폐기되는 편도선 조직으로부터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 부갑상선 호르몬이 분비되는 부갑상선 세포로 분화시키는 데 세계 최초로 성공한 것이다.

이번 연구는 부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평생 고용량의 칼슘 제제와 비타민 D를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세포 치료제의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성체중간엽줄기세포의 하나인 편도줄기세포가 내분비기관인 부갑상선 조직을 재생할 수 있는 것으로 밝힘으로써 성 호르몬 분비선 조직 등 또 다른 내분비기관의 재생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의가 높다.

/최치선 기자

(왼쪽부터) 김동구 대성동마을 이장, 김희겸 경기도 행정2부지사, 전인성 KT 부사장,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이재홍 파주시장, 이재영 LH 사장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의협·의학회 '포스트 메르스 막기' 머리 맞댄다

30일 대책마련 2차 토론회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의학회(회장 이윤성)가 Post 메르스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 토론회를 오는 30일 오후 2시 의협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메르스 종식 선언 이후 제2의 메르스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25일 개최된 1차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Post 메르스 대책에 대한 논의를 크게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두 파트로 나눠 진행하게 된다.

주최측인 의협·의학회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부실한 대응체계 등 이번에 노정된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는 한, 메르스는 끝났다고 할 수 없다"면서 "의료전문가단체이자 국민건강의 최일선을 지키는 의협과 의학회가 지속적인 포스트 메르스 전략과 대책을 제시해나가겠다"며 2차 토론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최치선 기자

새마을금고 '통일맞이 첫마을' 만든다

대성동마을 35년만에 새단장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8일 비무장지대(DMZ) 내 대성동마을을 '통일맞이 첫마을'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민관 협동 프로젝트인 '대성동 프로젝트'는 지난 35년간 개발이 멈춰버린 대성동마을을 주민과 정부, 기업, 국민이 함께 단장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행정자치부 등은 지난 23일 대성동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고 협약식을 가졌다.

신종백 중앙회장은 협약식에서 "'대성동 프로젝트 사업'은 후손들에게 역사적가치를 심어줄 수 있는 뜻 깊은 사업"이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바란다"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

강강술래, 피서지 간편 먹거리 파격 할인전

곰탕·떡갈비 등 최대 반값
뮤지컬 점프 티켓 증정도

외식문화기업 전한(대표 최종만)이 운영하는 한식숯불구이전문점 강강술래가 본격적인 바캉스 시즌을 맞아 31일까지 피서지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간편 먹거리를 파격 할인판매한다고 28일 밝혔다.

100% 한우로만 우려내 맛이 진하고 고소하며 레토르트 방식을 적용해 상온 보관이 가능한 보양식한우사골곰탕박스(500ml·10봉·20인분)를 50% 할인된 3만5700원에 판매한다.

100% 한우갈비살만을 사용해 한 끼 식사대용은 물론 영양간식과 술안주, 캠핑 먹거리로 좋은 칠칠한우떡갈비세트(360gX3박스)도 50% 할인된 3만3000원에 구매 가능하다.

매장 인기메뉴인 강강양념구이(520g) 또는 술래양념구이(520g)도 각각 4만3000원에 판매하며, 구매 시 한우양념불고기(500g)를 덤으로 준다.

구입은 이달 31일까지 온라인 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sullai.com) 고객마당·경품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넌버벌 뮤지컬 '점프' 공연티켓(1인2매)을 증정한다.

점프는 40여 개국 1만여 회 공연으로 세계 500만 명 이상 관객을 열광시킨 작품이다. 무술 고수 가족의 집에 엉뚱하고 귀여운 도둑들이 들어와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대사없이 생생한 라이브 액션과 절묘한 코믹 연기를 통해 요절복통 웃음을 선사한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주한영국문화원 어학원, 내달 30일 확장이전

주한영국문화원 (원장 : 마틴 프라이어/Martin Fryer)이 오는 8월 30일, 현재의 광화문 사무실에서 배재정동빌딩 (주소 : 서울특별시 서소문로11길 19 /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 전화 : 02-3702-0600)으로 이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살아있는 영어' 강의로 유명한 80년 전통의 주한영국문화원 어학원 역시 재탄생한다. 기존 3개의 센터에서 5곳의 센터로 확장한다. 이번 확장으로 성인을 위한 센터와 어린이를 위한 센터를 분리하고 연령대별 전문성 높은 교사진을 배치해 수업의 수준을 높인다.

새롭게 오픈하는 센터는 목동 센터(어린이), 시청 센터(어린이), 을지로 센터(성인)다. 기존 마이클래스 강남 센터(성인)와 서초 센터(어린이)는 그대로 운영된다.

한편 광화문 센터는 8월 22일까지만 운영한다. 새 센터에 등록을 원하는 수강생은 오픈 전까지는 기존 광화문 센터 (02-3702-0600)에서 레벨테스트를 받은 후 등록하면 된다. /최치선 기자

star bag

'치즈인더트랩' 여주 확정

배우 **김고은**이 '치즈인더트랩'의 여주인공이 됐다. 28일 제작사에이트웍스 측은 10월 방영 예정인 tvN '치즈인더트랩'(극본 김남희, 고선희·연출 이윤정)의 여주인공 홍설 역에 배우 김고은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8월 단독 콘서트 개최

그룹 **비스트**가 오는 8월 국내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소속사 측은 28일 "비스트가 다음달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체조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 '2015 뷰티풀 쇼'로 팬들과 만난다"고 전했다.

열애설은 사실 무근

방송인 **줄리엔강**이 모델 장성희와의 열애설을 부인했다. 두 사람은 이날 한 매체의 보도로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측은 "서로 알고 지내는 친한 오빠 동생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파격적인 티저 공개

래퍼 **치타**가 파격적인 티저이미지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티저이미지는 강렬한 메이크업에 섹시한 의상을 입은 치타를 중심으로 여장한 남장 댄서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치타는 다음달 3일 새 싱글을 발표한다.

한국 알리미 됐어요

배우 **이민호**가 한국을 대표하는 얼굴로 발탁됐다. 이민호는 메르스 여파로 침체에 빠진 관광 시장 회복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기획·주관하는 해외 광고 홍보주자로 선정돼 7월 중순 촬영을 마쳤다.

"안방에서 맹활약도 기대하세요"

뮤지컬계 명품 조연 김희원

대한민국 뮤지컬계에도 명품 조연이 있다. 한 명을 꼽으라면 단연 김희원(41)이다. 김희원은 '코러스라인' '해상왕 장보고' '명성황후' '블루사이공' '토요일 밤의 열기'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레베카'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비음이 섞인 하이톤 목소리에, 애교 가득한 눈빛과 몸짓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김희원 만의 캐릭터를 완성했다.

최근 막을 내린 뮤지컬 '쿠거'에서 그는 쿠거바의 마담 '메리마리' 역을 맡아 특유의 카리스마를 유감없이 과시했다. 잠시 휴식을 취할 법도 하지만 곧바로 뮤지컬 '한 여름 밤을 꿈' 연습에 매진했고, 첫 안방 나들이를 위해 드라마 촬영도 시작했다.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제자들을 양성하는 것도 그의 중요한 일과다.

뮤지컬 '쿠거' 공연을 본 뒤 2개월 만에 김희원을 만났다. 당당한 풍채를 자랑하던 그였지만, 이날은 얼굴 라인이 드러나 깜짝 놀랐다.

> 비음 섞인 하이톤의 독보적 캐릭터
> '쿠거' 이어 '한 여름 밤을 꿈' 출연
> 뮤지컬 제작·극단 제자들 지원위해
> 내달 방송될 아침드라마 출연 결심

"'쿠거' 공연을 하며 10kg 이상 빠졌어요. 작품을 이끌어가는 역할이다 보니 체력 소모가 많았나봐요. 잠시 쉬고 싶었지만 뮤지컬 '한 여름 밤을 꿈'의 대본과 연출을 맡은 박재민 씨가 저와 막역한 사이에요. 출연해 달라고 하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사실 저도 하고 싶었고요. 살이 빠졌다고 놀라는데 저 젊었을 때는 날씬했거든요. 하하!"

김희원의 차기작인 뮤지컬 '한 여름 밤을 꿈'은 조선브로드웨이 뮤지컬을 표방하고 있다. 영국 최고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한 여름 밤의 꿈'에 우리나라의 고전 '장화홍련전'을 접목시켰다. 한 여름 밤 숲 속의 귀신들과 인간의 사랑 이야기를 그리면서 100여년 전 개화기 당시 대한제국 명성황후의 명으로 고종 황제의 은혼식에서 상영될 영화 '장화홍련전'의 촬영 해프닝을 다루고 있다.

"이 작품은 10년 전 '한 여름 밤의 악몽'으로 초연됐어요. 당시 저는 극을 이끌어가는 사회자이자 극중극 형태로 펼쳐지는 영화 '장화홍련전'의 감독 박정현을 맡았죠. 이번에는 길상을 짝사랑하는 여자 순진 역할을 해요. 10년 전에도 이번에도 같은 느낌이지만 박재민 연출은 정말 천재인 거 같아요. 기발하거든요. 요즘 세태를 비꼬는 철학도 있고요. 재미있을 거라 자신합니다. 스포일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공연 마지막 10분은 우리 공연계에 첫 시도되는 판타지가 펼쳐져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김희원의 말처럼 '한 여름 밤을 꿈'은 국내 공연 시작 전 이미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았다. 중국투어를 위해 상해 TV 콘텐츠 벤처인 PURFUME 미디어와 MOU를 체결했고, 일본 라이선스 공연을 위한 협상도 진행 중이다.

김희원은 현재 싱글이다. 목소리에 애교가 있어 주변에 남친이 많을 듯 하지만 연애에는 관심이 없다고 했다.

"어린시절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결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냥 독신으로 아빠와 알콩달콩 살거에요. 제가 하고 있는 일도 재미있고요."

독특한 캐릭터로 그동안 영화나 드라마에서 러브콜이 있었지만 무대를 떠나지 않으려는 그의 고집 때문에 다 거절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가 꿈꾸는 뮤지컬 제작과 제자들의 지원을 위해서라도 유명해져야겠다는 결심이 섰다. 8월17일 첫 방송되는 KBS1 아침드라마 '별이 되어 빛나리'에 출연을 결심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2006년 희원극단을 만들었고, 뮤지컬 배우를 양성하는 희원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죠. 희원극단을 통해 뮤지컬 '비지트'도 직접 제작했구요. 희원 아카데미 출신 배우들은 어디를 가도 칭찬을 받아요. 뿌듯하죠. '비지트'도 다시 무대에 올리고 싶어요."

무대를 벗어나 스크린과 브라운관에서도 김희원을 자주 볼 수 있을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뮤지컬 '한 여름 밤을 꿈'은 8월 21일~11월 1일 대학로 뮤지컬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문의: 02)766-9001

/김민준 기자 mjkim@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구준엽·박명수 등과 물싸움하며 즐기는 라이브쇼

내달 1일 워터 버라이어티 뮤직페스티벌 '워터밤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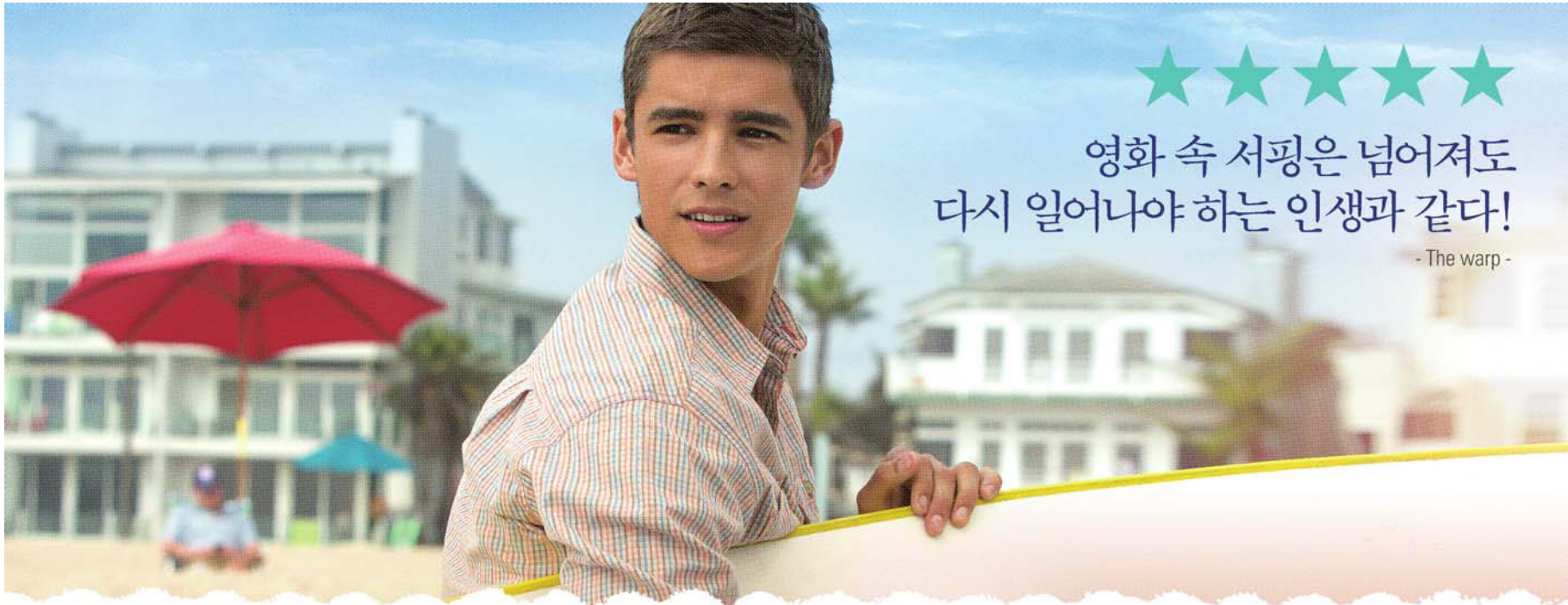
도심 속에서 스타들과 물싸움을 즐기는 신개념 페스티벌 '워터밤 2015'가 8월 1일 잠실종합운동장 특설링에서 펼쳐진다.

'워터밤 2015'는 아티스트와 관객이 블루팀과 레드팀으로 나눠 서로 물싸움을 하고 대결구도의 공연을 즐기는 여름 페스티벌이다. 참가자 전원에게 워터건(물총)과 팀 스카프가 제공된다. 또 워터 캐논, 빅 블라스트 등 다양한 물 특수 효과와 함께 스릴 넘치는 물놀이를 즐기고, 원형 스테이지를 통해 아티스트 공연도 볼 수 있다.

최근 첫 솔로 싱글 앨범을 발매한 입담꾼 엠씨 프라임이 블루팀과 레드팀의 대결을 이끌 공식 심판을 맡는다. 박명수, 구준엽을 비롯해

브라질 출신 트롭킬라즈와 국내파 프란츠, 인사이드코어, 킹맥, 맥시마이트, 준코코, 반달락, 데이워커가 DJ 라인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레게의 아이콘 스컬&하하와 악동 DJ DOC는 페스티벌의 피날레로 특별 합동공연을 꾸밀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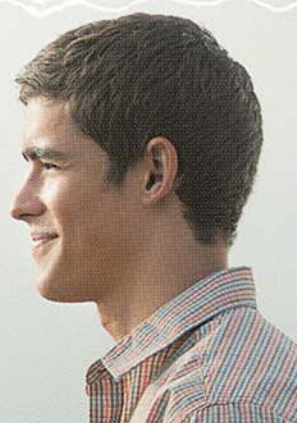
이번 행사를 기획한 VU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올해 처음 진행되는 '워터밤 2015'는 예능을 기반으로 한 페스티벌이라는 발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행사 뒤에는 애프터파티도 마련된다. '워터밤 2015' 팔찌를 착용한 사람은 새벽 1시까지 강남권 클럽 '앤써' '신드롬' '옥타곤' '엘루이'와 이태원의 '레드룸'을 무료 입장할 수 있다. /김민준 기자

아들바보 억척엄마의 자아찾기

라이드
:나에게로의 여행
RIDE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헬렌 헌트
〈더 기버:기억전달자〉 브렌튼 스웨이츠

절찬 상영중!

ULTRAMEDIA |감독/주연|헬렌 헌트 |수입/배급| tcast cinecube |15세 이상 관람가| SIX SALES

film review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에단 헌트와 요원들의 막강 팀플레이

■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

4년 만에 돌아온 속편 액션·캐릭터 매력 가득

첩보원 사이에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는 곳이 바로 첩보원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화 속 첩보원들은 늘 고독하다. 물론 예외도 있다.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IMF 요원들이 그렇다.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은 4년 만에 선보이는 속편이다. 에단 헌트 역의 톰 크루즈의 원맨쇼였던 전작과 달리 '팀워크'가 강조된 점이 눈에 띈다. 전작보다 한층 유머러스하면서도 흥미진진한 속편이다.

영화는 전작과 마찬가지로 IMF가 다시 위기에 처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모든 것을 비밀로 감춘 채 작전을 수행하는 IMF는 "구시대의 산물"이라는 이유로 해체된다. 전직 요원들로 구성된 반 IMF 단체인 신디케이트의 정체를 쫓던 에단 헌트는 소속도 나라도 없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홀로 불가능한 미션에 몸을 던진다. 여기에 신디케이트 소속인 의문의 여인 일사(레베카 퍼거슨)가 등장해 이야기는 흥미를 더한다.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인기 비결은 전 세계를 무대로 펼쳐지는 화려한 액션 시퀀스에 있다. 이번에는 미국과 영국은 물론이고 벨라루스, 오스트리아, 모로코 등을 중심으로 액션의 향연이 펼쳐진다. 오프닝을 장식하는 수송기에서의 액션은 스턴트 없이 온몸을 내던지는 톰 크루즈 표 액션을 확인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 빈의 오페라 극장에서 펼쳐지는 총격전은 우아하다. 모로코에서의 차량 추격전은 CG를 최대한 배제한 아날로그적인 액션의 쾌감을 가득 느낄 수 있다. 영화의 대미를 장식하는 영국 런던에서의 액션 신은 고전적인 풍미를 자아낸다.

그러나 이번 '미션…'은 전작의 흥행 공식을 그대로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캐릭터의 강화, 그리고 이를 통한 팀워크의 강조는 이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이다. 위기에 처한 에단 헌트를 구하기 위해 하나 둘 모이는 벤지, 브랜트, 그리고 루크(빙 라메스)의 활약이 더해지면서 영화는 더욱 풍성한 재미를 보여준다. 전작들을 꾸준히 챙겨본 관객이라면 이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묘한 전율을 느낄 것이다. 남성 캐릭터 못지 않은 액션 실력으로 존재감을 남기는 일사 역의 레베카 퍼거슨도 영화의 빼놓을 수 없는 매력 포인트다. 15세 이상 관람가. 7월 30일 개봉.

TV 하이라이트

영재 아들을 두고 갈등하는 부부

◆ SBS '영재발굴단'

오후 8시 55분

베테랑 리포터 조영구·신재은 부부가 아들 조정우군의 교육법을 두고 직접 '영재발굴단'의 문을 두드린다. 조정우군은 6살 때 상위 3%에 드는 영재 판정을 받았다. 이에 조영구와 신재은은 각자 다른 교육관을 두고 갈등한다. 조영구는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매니저처럼 아들 뒤만 따라다니는 아내가 못마땅하다고 고백한다. 신재은은 아들의 뛰어난 재능을 발전시켜주려면 어쩔 수 없다고 맞선다.

◆ MBC '라디오스타'

오후 11시 15분

'묻지마 과거 특집'으로 정창욱·강예빈·허각·배수정이 출연해 입담을 과시한다. 네 사람은 지금과는 사뭇 다른 과거 직업과 그에 얽힌 에피소드를 낱낱이 공개한다.

◆ tvN '수요미식회'

오후 9시40분

여름 휴가철 특집으로 대한민국 대표 식도락 여행지 '통영'과 '거제'를 찾아간다. 군침 돌게하는 싱싱한 해산물과 도시에서는 접할 수 없는 낯선 토속 음식의 매력을 전한다.

◆ JTBC '유자식 상팔자'

오후 9시 40분

사법고시 1차를 10개월 만에 패스한 '엘리트 스타 변호사' 장진영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고2 사춘기 딸의 대학 진학 거부에 급기야 대학 진학을 강요하게 된다.

/정리=하희철기자 bbuheng@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9일 (수)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생방송 투데이	00 톡! 톡! 보니 하니 1 (2893회) 05 코코몽 3 25 꼬마 철학자 휴고 45 동생이랑 나랑 (23회)	00 하늘 놀이터 (재) 25 Real Fun World (재) 30 출동! 슈퍼윙스(영어·한국어) (재) 50 Real Fun World2 (재) 55 시계마을 티키톡!(영어·한국어) (재)
19시	00 KBS 뉴스 7 30 70년의 세월 70가지 이야기	50 오늘부터 사랑해 (80회)	15 위대한 조강지처 (33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돌아온 황금복 (37회)	00 곤 30 EBS 뉴스 50 사선에서	25 내 친구 아서(영어) (재) 35 Real Fun World3 (재) 40 내 친구 아서(한국어) (재) 50 두키 탐험대(영어)
20시	25 가족을 지켜라 (57회)	30 반려 동물 극장 단짝 55 비타민	55 딱 너 같은 딸 (53회)	00 SBS 8 뉴스 55 영재발굴단	40 다큐 오늘 50 세계 테마 기행	00 Real Fun World4 (재) 10 두키 탐험대(한국어) 20 스쿨랜드 (재) 30 공부의 왕도 (재)
21시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30 한국기행 50 EBS 다큐 프라임	00 다큐 오늘 10 EBS 스타 강사 특강
22시	00 생로병사의 비밀 55 국민대합창 우리가	00 어셈블리 (5회)	00 밤을 걷는 선비 (7회)	00 가면 (19회)	45 극한 직업	00 영화로 배우는 영어 <E. T.>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방학 특선 글로벌 다큐멘터리 5부작 인간과 우주	10 추적 60분	15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15 한밤의 TV연예	3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24시	40 동행 (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2차대전 종전 70주년 기획 다큐 <세계대전>	35 MBC 뉴스 24 55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35 나이트라인	05 지식채널e (재) 10 한국영화특선 <아홉살 인생> (재)	30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 (재)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20 비정상회담 (56회) (재)	20 집밥 백선생 (11회) (재)	10 오늘 뭐 먹지?		30 오즈 그레이트 앤드 파워풀	◆ 프로야구 (18:30) 한화 vs 두산 (SPOTV+) NC vs 삼성 (MBC SPORTS+) LG vs 롯데 (SKY SPORTS) KT vs 넥센 (SBS SPORTS) SK vs KIA (KBS N SPORTS)
19시	40 연금복권 520 (213회) 55 JTBC 뉴스룸	40 고성국의 빨간 의자 (58회)	30 현장토크쇼 TAXI (368회)	00 나는 자연인이다 (19회)		
20시	50 JTBC 뉴스룸	40 강용석의 고소한 19 (143회)		00 나노티라누스의 역습		
21시	40 유자식상팔자 (112회)	40 수요미식회 (27회)	00 주문을 걸어 (2회)	00 <순간포착!위험한 동물들> (8회)	00 무비스토커 (4회)	
22시			00 올리브쇼 2015	00 항공사고 수사대 : 에어 크래쉬 (9회)	20 금주의 영화:무비스토커 (1회)	
23시	00 냉장고를 부탁해 최고의 빅 매치 (5회)	00 집밥 백선생 (11회) (재)	00 오늘 뭐 먹지?	00 <2차 세계 대전:대서양 전투> 최후의 일격		
24시	30 비정상회담 스페셜 (56회)	20 강용석의 고소한 19 (143회) (재)	00 2015 테이스티로드	00 나는 자연인이다 (19회)	00 무비스토커 (4회)	

박인비 '그랜드슬램' vs 전인지 '4개국 석권'

내일 스코틀랜드 턴베리 브리티시오픈서 '메이저 퀸' 대결

박인비(27·KB금융그룹)와 전인지(21·하이트진로)가 각자의 기록을 달성하기 위해 메이저대회에서 맞붙는다.

박인비와 전인지는 30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개막하는 리코 브리티시여자오픈에 참가한다. 트럼프 턴베리 리조트의 에일사 코스(파72)에서 나흘간 열리는 이번 대회는 시즌 네 번째 메이저대회다.

박인비는 이 대회에서 자신의 커리어그랜드슬램 달성을 노린다. US여자오픈과 ANA 인스퍼레이션, 위민스 PGA챔피언십까지 3대 메이저 대회에서 이미 정상에 올랐다. 커리어 그랜드슬램의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대회 우승이 필요하다. 최근에 5대 메이저대회로 편입된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우승해도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할 수 있지만 시즌 초반 체력적인 부담이 덜한 시기에 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어 욕심을 내볼만 하다. 그랜드슬램 달성 가능성과 좋은 컨디션이 박인비가 이번 대회 우승 1순위로 거론되는 이유다.

전인지는 이번 대회에서 박인비의 강력한 라이벌이 될 전망이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맹활약해온 전인지는 지난 5월 일본여자프로골프투어(JLPGA)의 메이저대회 살롱파스컵에서 정상에 올랐고 이달 13일에는 US여자오픈을 제패함으로써 월드스타로 떠올랐다. 이어 26일에는 한국의 메이저대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에서 우승, 한 시즌에 한국과 미국, 일본의 메이저대회를 석권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3개월에 걸쳐 3개국 메이저대회를 우승하는 무서운 상승세를 탄 전인지는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에서 우승하자마자 스코틀랜드로 향했다.

전인지가 휴식 대신 LPGA투어를 택한 것은 이 대회가 유럽여자투어(LET) 대회이기도 해서다. 만약 우승한다면 한 해에 무려 4개 투어 메이저대회를 제패하는 진기록을 낳는다. LPGA 투어로만 보면 메이저 2승이다.

경력만 따지고 본다면 이미 6개의 메이저 우승컵을 든 박인비의 우세를 점칠 수 있지만 최근 주특기인 퍼트가 다소 불안정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올 시즌 그린 적중률은 75.4%를 기록해 샷 정확도 면에서는 지난해보다 업그레이드됐다.

박인비

전인지

이 밖에 한국 선수들에게 막혀 우승을 하지 못한 세계랭킹 3위 스테이시 루이스(미국)를 비롯해 장타자 렉시 톰프슨(미국),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8), 김효주(20·롯데), 김세영(22·미래에셋)등이 이들의 기록 경신을 저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하희철 기자 bbuheng@metroseoul.co.kr

김연아 "선수생활 80~90%는 힘든기억 뿐"

'도하 골즈 포럼'서 소회 "역경 있어야 성공한다"

'피겨퀸' 김연아(25)가 선수생활의 소회를 밝혔다.

김연아는 28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시내 매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도하 골즈 포럼'(Doha Goals Forum)의 타임아웃 세션에 2015 하계 스페셜올림픽 홍보대사 자격으로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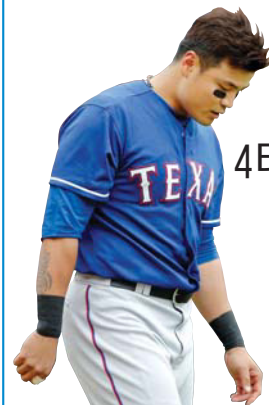
그는 "선수생활 17~18년 중에서 힘겨웠던 기억이 80~90%였다. 피겨 스케이트 선수 생활을 하면서 행복했던 기억은 몇 퍼센트 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그 순간 때문에 포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연아는 2010년 벤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최고점을 얻었던 순간과 2009년 월드챔피언십 우승을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경기"라고 회고했다.

'피겨 여왕' 김연아(25)가 28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내 매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도하 골즈 포럼'(Doha Goals Forum)의 타임아웃 세션에 참석해 과거 선수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스포츠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역경이 없으면 성공도 없다"면서 "이번 스페셜올림픽에 참석한 발달장애인들도 어려움을 딛고 희망과 용기를 가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아는 지난 25일 LA 메모리얼 콜로세움에서 열린 스페셜올림픽 개막식에서 홍보대사로서 한국선수단과 함께 입장했다. 이번에 참석한 '도하 골즈 포럼'은 올해로 4회째다. 칼 루이스·마이클 펠프스(미국), 나디아 코마네치(루마니아) 등 전 세계 전설적 스포츠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스포츠를 통해 사회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행사다.

김연아는 이번 '2015 LA 하계 스페셜올림픽'을 계기로 스페셜 홍보대사와 유니세프 국제친선대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26일에는 유니세프와 스페셜올림픽이 함께하는 공동 토의에도 참석했다. 이어 오후에는 농구 경기가 열린 서던 캘리포니아대(USC) 갤런 센터를 방문해 한국 선수를 응원했다. /하희철 기자

추신수 4타수 무안타

시즌타율 0.230

메이저리그 텍사스의 추신수(33·사진)가 15일만에 상위 타선에 복귀했으나 무안타에 그쳤다.

추신수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 라이브 파크에서 열린 뉴욕 양키스와의 홈경기에서 2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장해 4타수 무안타 1삼진 1볼넷을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230(331타수 76안타)으로 떨어졌다.

올스타 휴식기 후 추신수는 선발 출장 경기에서 8번 또는 7번 타순으로 경기를 치렀다. 이날은 모처럼 상위 타순에서 테이블 세터 역할을 맡았지만 안타 없이 볼넷 1개를 얻는데 그쳤다. 5경기 연속 출루에 성공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추신수는 전날 왼손 선발투수를 상대로 선발에서 제외됐었다. 이날 상대로 오른손 투수 이반 노바가 예고되자 다시 선발로 나왔다. 하위타선 '굴욕'도 탈출했다. 전반기 마지막 경기였던 지난 13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에 2번타자로 나선 후 줄곧 7, 8번을 지켰다.

텍사스는 양키스에 2-6으로 완패하며 2연패에 빠졌다.

양키스의 알렉스 로드리게스는 자신의 40번째 생일을 자축하는 시즌 24호 솔로홈런을 터뜨렸다. 통산 678번째 홈런을 날린 로드리게스는 타이 코브, 러스티 스텁, 게리 셰필드에 이어 역대 4번째로 10대와 40대에 모두 홈런을 친 빅리그 선수가 됐다. /하희철 기자

기보배, 2위로 세계양궁선수권 예선라운드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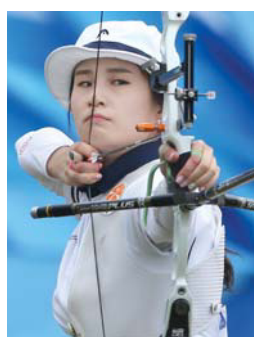
단체전 예선은 1위 차지

한국 양궁의 '간판' 기보배(광주시청·사진)가 2015 세계양궁연맹(WA)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리커브 예선전에서 2위를 기록했다.

기보배는 28일(한국시간) 덴마크 코펜하겐 선비 스포츠파크에서 열린 대회 둘째날 여자 리커브 70m 예선라운드에서 665점(720점 만점)을 쏴 본선행을 확정지었다.

1위는 지난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에도 출전했던 린스자(대만)였다. 린스자는 예선에서 기보배보다 2점 높은 667점을 쐈다. 강채영(경희대)은 기보배와 동점인 665점을 기록했지만 10점 과녁에 기보배(31개)에게 3개 뒤진 28개의 화살을 쏘면서 3위로 밀렸다. 최미선은 661점으로 6위를 기록, 본선행에 올랐다. 한국 선수 3명이 모두 예선 8위 안에 들면서 32강 직행 티켓을 땄다. 준결승에 오를 때까지 한국 선수끼리 마주칠 일이 없게 됐다.

이밖에 북한의 최옥실은 11위(654점), 덴마크의 마야 야게르는 15위(652점)를 기록해 개인전 본선 96강에 합류했다.

한국은 출전선수 3명의 점수를 합산해 본선 진출 16팀을 선발한 단체전 예선에서 대만(1978점)을 누르고 1위(1991점)를 차지했다. 이로써 내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권 최대 3장을 딸 수 있는 8강전 진출을 향해 순항을 시작했다.

/하희철 기자

Apple Getting Ready to Launch Electric Car··· Samsung?

애플은 전기차 시동 걸 준비하는데…삼성은?

Apple and Samsung are showing different paths at the verge of launching electric cars.

While Apple is starting its engine on electric cars, Samsung has not yet made their decisions.

Therefore, there are concerns about launching duplication of smart phones and electric cars of one side.

The analysis states that as Apple is on the process of completing the road map of electric cars, the slower Samsung makes their decision, the harder it will be for them be lead this trend.

The majority states that with the fast follower strategy like the smart phones, the electric cars may struggle as well.

According to the press on the 27th, Apple started their negotiation with the BMW on electric cars.

It seems that Samsung is ready and has the technology to start the electric car business, but Samsung is taking the conservative stance.

Some say that Samsung control tower needs a futuristic change before it's too late.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카타르항공은 자사의 허브 공항인 하마드 국제공항 내 카타르 면세점에 '삼성 익스피리언스 스토어(Samsung Experience Store)'를 개장했다고 27일 밝혔다. /연합뉴스

애플과 삼성이 전기차 시장 진입을 두고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애플이 전기차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반면 삼성은 확실한 의사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전기차도 스마트폰의 판박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애플이 전기차 로드맵을 완성해 가고 있는 가운데 삼성의 시장 진입이 더딜수록 주도권을 쥐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스마트폰과 같은 패스트팔로어(fast follower) 전략으로는 전기차 시장에서도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7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독일 자동차 제조사 BMW와 전기차에 대한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삼성이 전기차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은 전기차 시장 진입에 보수적이다.

재계 일부에서는 더 늦기 전에 삼성 컨트롤 타워의 미래비전 제시가 필요한 시기라는 조언을 하고 있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6	5		2			
	5		3				8	
		7				5		1
	4	8			5	6		
5	9						1	3
		3	1			8	9	
8		4				7		
	3				1		2	
			8		7	1		

9			3				5	1
	6	4	1			9		
5			2					
	3	8					6	9
		6		7		8		
4	9					3	7	
					8			7
		9			1	5	4	
1	4				2			3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스도쿠 정답

9	8	6	5	1	2	3	4	7
4	5	1	3	7	6	2	8	9
3	2	7	4	8	9	5	6	1
1	4	8	9	3	5	6	7	2
5	9	2	7	6	8	4	1	3
6	7	3	1	2	4	8	9	5
8	1	4	2	9	3	7	5	6
7	3	5	6	4	1	9	2	8
2	6	9	8	5	7	1	3	4

9	8	2	3	6	4	7	5	1
3	6	4	1	5	7	9	2	8
5	1	7	2	8	9	4	3	6
7	3	8	4	1	5	2	6	9
2	5	6	9	7	3	8	1	4
4	9	1	8	2	6	3	7	5
6	2	3	5	4	8	1	9	7
8	7	9	6	3	1	5	4	2
1	4	5	7	9	2	6	8	3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동업 제의를 받았는데 사업운이 있나요?
동업자 다스릴 힘은 약하나 유통업은 무난

알곡쟁이 남자 69년 11월 17일 양력 4시

Q 저는 47살 중년 남성입니다. 길거리에 있는 사주카페에서 저의 사주팔자를 물어 보면 재물을 나타내는 오행이 많아 잘 살수 있다고 하는 곳이 있으며 반대로 토끼띠 생이 겨울에 태어나서 들판에 풀이 다 메말라 죽어 먹을거리가 부족하니 주인이 집어다주는 풀을 먹고 살아야 하듯이 평생을 봉급생활을 할 팔자라고 합니다.

몇 해 전만해도 중국에서 물건을 받아다가 도매로 넘기는 일을 해오면서 재미를 보다가 사기를 당해 지금은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데 친구 한명이 건강식품 인터넷 쇼핑몰을 동업하자는데 성공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사기라는 말은 곧 고립되었단 얘기입니다. 악연을 만나 피해를 당한 경우라면 새로운 사람과 깊이 교류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으나 누구를 막론하고 현재의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공으로 이끌 귀인은 주변에 반드시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에 귀인의 조력이 보태져야 세속적인 발전이 되는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인을 만나 성공하는 이가 있는가하면 평생에 인복이 없음을 한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인을 알아보는 안목도 중요하지만 팔자 술이 말하는 귀인의 작용법칙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현재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구해줄 귀인은 가급적 과거의 인연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팔자 술의 인연법은 강조합니다.

과거친구보다는 가급적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움직여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되기 위해 일을 열심히 하나 해도 해도 망하거나 결국 끝에 가서 무일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안 된 얘기지만 귀하의 사주가 이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사주가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비견겁재(比肩劫財:친구 동업자)를 다스릴 만한 힘이 약하니 비견겁재가 귀하의 편이 되지를 못하여 동업자가 겁재(劫財:재물을 탈취함)가 되어 재물을 빼앗아 가게 되니 망합니다.

다만 유통업은 나름 무난합니다. 재다신약(財多身弱:재성이 많으나 자신이 약함)하여 이것저것 돈이 되는 것이 눈에 띄어서 손을 대보지만 내 자신의 쟁취할 수 있는 힘이 모자라니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되어 뒤로 물러앉게 되는 것입니다.

재다신약의 사주의 특성은 부인에게도 잘 하지 못하고 다른 여자에게는 관심이 많은 것이 특징이니 이점도 특히 2016년부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7월 29일 (음 6월 14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48년생 거만한 생각은 독입니다. **60년생**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72년생** 적절하게 브레이크를 걸 줄 알아야 합니다. **84년생** 갈망하던 것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49년생 세력이 너무 강성하기 때문에 주위가 압도됩니다. **61년생** 언행을 조심하세요. **73년생** 즐거운 술자리를 갖게 됩니다. **85년생** 별 갈등 없는 평범한 하루가 될 것 입니다.

50년생 강한 주장을 내세우지 마세요. **62년생** 주변인들과 오해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74년생** 예의를 바르게 갖추고 생활하세요. **86년생** 행동 가짐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51년생 얼마전부터 애 타게 찾는 게 있습니다. **63년생** 지성으로 빌면 이루어집니다. **75년생** 걱정시켰던 문제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87년생** 융통성 있게 행동하도록 하세요.

52년생 지금은 확고한 의지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64년생** 차분한 운기가 느껴지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76년생** 자신의 매력을 한껏 발휘하도록 하세요. **88년생** 기력에 넘쳐 있는 하루입니다.

53년생 자신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세요. **65년생** 취미나 능력을 살려서 부업에 도전해보세요. **77년생** 조그마한 인연이 많은 날입니다. **89년생** 가까운 곳에 여행을 떠나면 길합니다.

54년생 본업을 소홀이 하지 마세요. **66년생** 과하면 역효과를 부르니 주의 하세요. **78년생** 지루함을 느끼기 쉬운 하루입니다. **90년생** 중요한 면접에서 좋은 성과를 얻게 됩니다.

55년생 금전계약은 다음으로 미루세요. **67년생** 중요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납니다. **79년생**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서 활약할 수 있습니다. **90년생** 금전운이 매우 좋습니다.

56년생 평소와는 다른 애정표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68년생** 그룹에 행운이 있는 날입니다. **80년생** 사람들을 만나러 밖으로 나가세요. **92년생** 적극적으로 어필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57년생 커뮤니케이션 운이 상승합니다. **69년생** 생각지도 못한 행운을 잡을 수 있습니다. **81년생** 초조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93년생** 마인트컨트롤이 매우 중요합니다.

58년생 실수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70년생** 말과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82년생** 힘든 하루가 예상됩니다. **94년생** 거짓말은 절대 안됩니다.

59년생 도의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마세요. **71년생** 경거망동을 삼가세요. **83년생** 얼마 안된 사람과는 어느정도의 거리를 두도록 하세요. **95년생** 애정운이 매우 좋습니다.

투자회수 전략

김재헌 변호사의
BizLaw

주식인수 방식으로 M&A거래를 한 경우 투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투자회수는 수익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을 때에 하는 것이다. 기존 대주주와 분쟁이 생겼을 때 적절한 가격에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고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분쟁상황에서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투자회수계획 또는 투자회수전략을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좋다. 투자회수전략으로는 풋옵션, 동반매도참여권, 동반매각요청권, 우선매수청구권 등이 있다.

풋옵션(put option)은 투자계약상 채무불이행 등 특정한 상황이 생긴 경우 투자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된 가격으로 대주주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 right)은 대주주가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려고 할 때 대주주에게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도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투자자도 동일한 조건으로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므로 투자자에게 유리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동반매각요청권(drag-along right)은 대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투자자의 보유 주식도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도할 것을 투자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제3의 매수자가 대주주의 지분 외에 관련 지분도 매수하기를 원하는 경우 대주주로서는 투자자의 주식도 일괄해서 매각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주로 대주주에게 유리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PEF와 같은 전문투자자인 경우 투자자가 제3의 매수자를 발굴하는 것이 용이할 수 있기 때문에 동반매각요청권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우선매수청구권(right of first refusal)이란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매각하는 주식의 수, 매도가격 등 매각조건을 기존 대주주에게 통지해 주어야 한다. 이 통지를 받은 대주주는 제3자에게 제시된 매각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투자자 보유주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자는 대주주가 매수하지 않기로 하였을 때 비로소 제3자에게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대주주로서는 새로 주주가 될 제3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투자자 보유 주식을 자신이 매수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위해서 활용하는 권리이다. 다른 권리들과 마찬가지로 대주주가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투자자가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질 수도 있다.

위와 같은 권리는 공정한 매각가격의 산정을 전제로 하므로 투자계약 협상을 할 때 매각가격의 산정절차와 방식을 충분히 상의하여 합의내용을 계약에 잘 반영을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우선매수청구권 등 제3자에 대한 매각가격이 권리행사의 기준이 되는 경우 그 가격산정방식을 명확히 해 두지 않으면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인터뷰에 대한 생각

기자 수첩
장 병 호
<문화스포츠부 기자>

영화 담당 기자이다 보니 배우들을 인터뷰하는 일이 많다. 그래서 주변에서 "부럽다"거나 "재미있겠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충분히 이해한다. 연예인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우와의 인터뷰가 마냥 즐겁고 재미있는 것은 아니다. 인터뷰야 말로 일종의 전쟁터다. 기자는 배우가 지닌 이미지를 한꺼풀 벗겨내 그 속에 담긴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하려고 한다. 그러나 배우는 그런 기자 앞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고 애를 쓴다. 둘 사이에서 벌어지는 묘한 신경전. 인터뷰 기사는 이 팽팽한 줄다리기의 결과물이다.

처음 배우와 인터뷰를 하던 때를 떠올려본다. 기자라는 이름을 달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많던 때였다. 정작 배우를 만났지만 질문 하나 던지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다. 열심히 준비해간 질문지를 그대로 읽기만 했다. 앞에 앉아있던 배우는 기자가 던진 질문에 조금은 무미건조한 태도로 대답했다. 인터뷰가 끝나자 허탈함이 밀려왔다. 애써 준비한 시간을 의미 없이 허비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허탈함은 이후로도 당분간 계속됐다. 기계적으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마음먹었다. 1시간 남짓한 시간만이라도 인간적인 대화를 나누자고 말이다. 물론 이 짧은 시간에 한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인터뷰를 하는 동안 인간적으로 대화를 나눈다면 아주 약간이라도 상대방의 진정한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한 마디의 말은 물론 행동과 표정을 통해서도 그동안 알지 못한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부터 인터뷰가 즐거워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인터뷰도 쉽지 않다. 매체의 수는 늘어나고 배우의 스케줄은 더욱 촉박해졌다. 그래서 1대1의 인터뷰보다 다수가 함께 하는 라운드 인터뷰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인간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더 희박해진 것이다. 최근 한 배우의 인터뷰가 영화 담당 기자들에게 큰 화제가 됐다. 그 인터뷰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이 해프닝이 점점 인간적인 대화를 나눌 수 없게 된 인터뷰의 한 경향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아쉽다.

인 사

■ 메트로신문
△편집국 경제부장 차기태 △논설위원 윤경용

■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승진>
△홍보담당관 이강호 △조세정책과장 박금철 △미래정책총괄과장 이대희 △국고과장 성일홍 △대외경제총괄과장 유형철 <서기관 승진> △기획재정부 박형수 △자금시장과 이복원 <국장급 파견>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재정국장 지규택 △국외직무훈련 윤정식

■ 해양수산부 <국장급 전보>
△정책기획관 김준석 △해양산업정책관 엄기두 △세월호 배상 및 보상지원단장 이동재 <과장급 전보> △감사담당관 우동식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장 김상훈

■ 관세청 <과장급 전보>
△관세청 정보관리과장 이용희

■ 국회사무처 <관리관 승진>
△기획조정실장 전상수 <이사관 승진>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철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채수근 <이사관 전보>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정창모 △국회사무처 이창림 <부이사관 전보> △의정연수원 교수 배영덕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입법심의관 오창석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심의관 정순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심의관 송주아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심의관 임재봉 △국제국 의회외교정책심의관 최용훈 △국회사무처 박재유 △국회사무처 정운경

■ 과천시
△환경위생과장 민경종 △의회사무과장 권영호 △환경사업소장 이경석 △별양동장 황천수 △건설과장(직대) 김유경

기사제보=02)721-9832

社 說

보이지 않는 적을 잘 막아야

온 국민을 불안하게 했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새로운 환자의 발생이 23일째 없었고, 국민들의 생활은 메르스 발생 이전으로 돌아갔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24일 "이제는 안심해도 좋다는 것이 의료계와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끝났음을 선언한 셈이다. 지난 5월20일 첫 환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69일 만의 일이다.

사실 메르스 사태는 과거 겪었던 구제역 창궐사태나 세월호 침몰참사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처음부터 주도면밀하게 대응했다면 겪지 않았을 어처구니없는 사태였다. 메르스 환자가 처음 발생했을 때 인근지역은 물론 다른 곳으로 확산될 수도 있음을 감안해 확실한 방역대책을 마련해야 했지만, 정부는 사실상 무감각했다. 마치 남의 나라 일인 것처럼 여기고 안일하게 대응했다. 더욱이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 이름도 공개하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켰다.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적'이라 하여 소홀히 다룬 것이 근본적인 실패요인이다. 보이지 않는 적은 사실 보이는 적보다 무섭다. 홍수와 가뭄 같은 자연재해도 무섭긴 하지만, 그 진행과정이 눈에 환히 보이기 때문에 대응하기 쉽다. 적의 군사적 위협이나 무장간첩도 시각으로 판단가능하기에 대응하기 어렵지 않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적은 보다 세심하게 관찰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놓치기 쉽다. 그리고 그 파급효과는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 통제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번에 겪은 메르스사태가 이런 이치를 잘 입증해 주었다. 메르스가 번져감에 따라 국민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동창회나 등산 등의 여가활동도 정지됐다. 국민의 일상생활도 상당한 혼란과 공포 속에 빠져들었다. 그 결과가 극심한 소비침체였다. 그렇지 않아도 내수부진에 시달리는 우리 경제에 또다른 치명타가 됐다. 그러니 이번 메르스 사태를 교훈 삼아 앞으로 '보이지 않는 적'을 막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보이는 적'을 방어하는데만 급급하다가 정작 더 무서운 적을 놓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다.

무더위 속 관절·척추 냉방병 주의

소비자 119

무더운 여름철에는 장시간 에어컨 사용으로 냉방병에 걸리기 쉽다. 냉방병은 보통 두통이나 한기를 동반하지만 어깨, 무릎, 허리 등 관절척추에도 냉방병이 찾아올 수 있다. 과도한 냉방으로 근육이나 인대가 경직되면 뻐근하거나 욱신한 통증이 생긴다. 특히 관절염이나 허리디스크와 같은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는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표적인 냉방병은 물리적 환경 변화에 신체가 적응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종의 적응장애다.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요즘 날씨에는 실내 온도를 20도 정도로 낮게 유지하는 곳에서 냉방병에 걸리기 쉽다. 에어컨 속 균에 의한 레지오넬라증이나 에어컨의 차가운 바람이 피부에 닿아서 생기는 알레르기도 냉방병에 포함된다.

과도한 냉방은 관절척추 통증도 유발할 위험이 있다. 특히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중장년층은 쉽게 통증을 느낄 수 있다.

여름철 관절·척추 냉방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내 온도와 습도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실내온도는 26~28도를 유지하고 외부와의 온도 차는 5도 이내로 조절한다. 여름철 습도는 70~80%인데, 에어컨이나 제습기 등을 이용해 실내습도를 50~60% 정도로 유지해야 한다. 틈날 때마다 전신 스트레칭을 해주면 근육과 관절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강북 힘찬병원의 권혁남 소장은 "찬바람을 쐰 뒤 관절이나 척추에 통증을 느낄 경우 몸을 따뜻하게 하고 아픈 부위를 온찜질 하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며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으면 질환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로 단순 냉방병으로 여기지 말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강북 힘찬병원 권혁남 소장